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육군 병장의 자발적 전역 연기 결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지 혜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육군 병장의 자발적 전역 연기 결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도교수 신 종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김 지 혜

김지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 록

본 연구는 국가 안보위기 상황 하에서 병장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고자 했던 결정에 대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장의 군 생활 경험이 어떠했는가 확인하고 둘째,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도발과 8월 20일 포격전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로 향했던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더불어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면담 문항을 작성하였고,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병장들 중 연구 동의를 받은 예비역 병장 5명과 간부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 연기 결정을 했던 병장들은 군 복무에 대한 적응도가 높았고, 간부, 동료, 후임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군 생활이 재미있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회고했으며, 각종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둘째, 전역 연기를 결정한 병장들은 입대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군 생활 경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군 입대 전에는 아버지와 주변 군필자들의 경험담으로부터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입대 초기 성실함과 적극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인정과 피드백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

셋째, 전역 연기 결정에 있어 병장들은 압박감이 없이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받았고, 군 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대원 간의 친밀한 관계성과 임무 숙달로 인한 유능감과 책임감이 병장들의 전역 연기 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병장의 경우, 전역 연기 결정을 내릴 때 평소 지휘관과 간부에 대한 모델링 학습과 정신전력교육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언론보도 내용과 영상자료, 접경지역 주민대피 기록, 공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자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며 깊이 있는 면담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역 연기 신청의 당사자인 예비역 병장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근무한 현역 및 예비역 간부들의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군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입대했고,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부대에서 피드백을 줌으로써 적극성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이에 입대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군대에 대해 우호적 시각과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취경험과 인정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부대 내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병장이 전역 연기라는 자발적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었던 요인이 부대원 간의 끈끈한 관계성이었다는 점은 각 부대에서 전우애 형성을 위한 병영생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셋째, 지휘관 주관 정신전력교육과 리더십, 평소 군 생활 간 간부들과 형성한 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했는데, 특히 내적 가치의 개념을 단순히 지식 차원으로 주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병사들이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위기 상황 하에서 병장의 전역 연기 결정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포착하여 상고하고 현상의 이면과 인간의 심리를 질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군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안보위기 상황 하에서 자발적 전역 연기 병장의 특수 사례를 통해 전쟁 위기로 긴장감이 조성된 상황과 군대 환경, 개인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였고 징집된 병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병력관리와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전역 연기, 병장, 군 생활 경험, 국가 안보위기
학 번: 2021-29806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문제 ····· 5
3. 연구자의 이해 ····· 6

Ⅱ. 이론적 배경 ····· 8
1. 전역 연기 결정의 정의 ····· 8
가.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 ····· 9
나. 전역 연기 결정의 해석 ····· 12
2. 군 조직의 특성 ····· 15
가. 군 조직의 특성 ····· 15
나. 군 조직 구성원의 특성 ····· 16
다. 군인정신 ····· 20
3. 병사의 군 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 21
가. 군 생활 적응 ····· 21
나. 병사의 군 생활 경험 ····· 22
4. 국가 안보위기 상황과 병사의 심리 ····· 25
가. 전장심리와 전의 ····· 25
나. 부대 응집력과 전투동기 ····· 27
다. 자기결정성 이론 ····· 30

Ⅲ. 연구방법 ····· 39
1. 연구의 흐름 및 연구방법 ····· 39
2. 언론보도 내용분석 과정 ····· 41
가. 분석대상 ····· 41
나. 분석방법 ····· 42
다. 분석결과 ····· 43
3. 면담 분석 과정 ····· 49
가. 연구 참여자 ····· 49

나. 자료수집 ····· 52
다. 자료분석 ····· 54
라. 윤리적 고려사항 ····· 56

Ⅳ. 결과 ····· 58
1. 사례 내 분석 ····· 58
가. 병장1: 전시에 함께 싸우고 싶었던 전우들 ····· 58
나. 병장2: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당연한 일 ····· 60
다. 병장3: 가족보다 우선했던 전우애와 국가공동체 의식 ····· 62
라. 병장4: 인정 욕구 충족과 자기만족을 지향 ····· 66
마. 병장5: 특별한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의 기대 ····· 67
2. 사례 간 분석 ····· 69
가.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 ····· 69
1) 입대 전 ····· 70
2) 입대 초기 ····· 72
3) 적응기 ····· 74
4) 고참기 ····· 84
나.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 87
1) 위기상황 인식과 정서 ····· 89
2) 현실적 판단과 대처 ····· 92
3) 내재동기의 자원 ····· 97

Ⅴ. 논의 및 결론 ····· 106
1. 요약 ····· 106
2.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 108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 115

참고문헌 ····· 117

Abstract ····· 133

표 목 차

<표 1>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의 흐름 ····· 12
<표 2> 자기결정성에 따른 동기유형 ····· 38
<표 3>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연구문제1,2) ····· 43
<표 4> 연구 참여자 명단 ····· 50
<표 5> 면담 분석 결과(연구문제1) ····· 69
<표 6> 면담 분석 결과(연구문제2) ····· 88

그 림 목 차

<그림 1> 전장심리와 전투의지 간의 함수관계 ····· 27
<그림 2> 연구의 흐름 ····· 3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명언이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가방위로서 먼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전쟁이 발발하면 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한다. 국방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대다수의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노준. 김영삼, 문성호, 2016).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 남성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수 남성들은 군 복무에 대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징병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군 복무가 자발적 동기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서미경, 박근우, 이규화, 2013). 다시 말해서, 병사들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자발적 동기가 부족하며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경험이라는 인식이 크다(이혜주, 박정윤, 2020). 동기 수준이 현저히 낮은 병사들은 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대 관련 연구동향도 대체로 군 생활 적응도, 부적응 요인, 스트레스 관리 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입대 후 병사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유발 원인(김정은, 2013), 군 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정원철, 지향숙, 2015; 김세원, 신창식, 2015),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요인(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김옥란, 김완일, 2015; 차주환, 2016; 강명숙, 2017; 이혜영, 장석환, 2017; 남연희 등, 2018; 연미선, 문재우 2018), 가정환경 요인(차주환, 이정하, 2010; 정봉기, 김완일, 2016; 김정희, 2016; 강부자, 최연실, 2017; 이경미, 김완일, 2019), 부대환경 요인(홍점동, 양난미, 2013; 정영제, 윤운성, 2013; 조추용, 2015; 이경수, 조민아, 2015; 이대식 외, 2016; 천세구, 채성기,

2016; 정성한, 김완일, 2018), 사회적 요인(김영애, 문승태, 2014; 장성규, 이상규, 최종혁, 2014)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즉, 평시 상황 하에서 군대라는 환경과 개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평시가 아니라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군대 환경과 개인은 어떤 상호작용을 보이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 위기가 바로 눈앞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의 근원적인 존재 목적을 상기한다면 이는 곧 국가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분단국으로서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과 같은 특수한 안보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20대 초중반 징집 병사들이 70% 이상을 차지(국방백서, 2020)하는 한국 군대의 특성을 상기할 때, 전시에 병사들이 어떠한 심리 변화와 행동을 나타낼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위기 상황을 상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의 희소성과 연구자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위기 상황과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전쟁이 발발할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는 반드시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군사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전력을 한국군은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과 같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유형 전력과 대비된 개념으로서 무형전력은 전투능력인 기술전력과 운용전력 그리고 전투의지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으로 구분된다(서호준, 2020). 기술전력은 무기,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사용법 숙달 및 기량 향상을 통해 전투력의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주는 전력이며 운용 전력은 병력, 장비, 물자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전략전술,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 능력을 말한다(박일, 고영건. 2012). 마지막으로 정신전력은 조직화된 전투 의지력으로 정의된다. 무형전력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모두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국방부, 1998).

다시 말해, 전쟁은 결코 무기만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우세한 유형전력을 가진 군대가 그렇지 못한 군대에 비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종종 나오는 것이 전쟁의 현실이다(이상복, 2017). 이스라엘의 6일 전쟁, 베트남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쟁의 성패 요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객관적인 전력평가 속에 들어 있지 않았던 무형의 전력으로 인해 많은 차이가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무기, 장비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를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과 전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무형적인 전력에 비례하여 군사전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무형 전력의 요체인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삭스(Maurice De Saxe)는 인간의 마음은 전장에 관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하며 전장 속에서의 인간 이해를 강조하였다(김성완 1998). 선행 연구에서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평시와는 다른 심리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McPherson, 1997; Woodruff, Kelty, & Segal, 2006; Ben-dor, Pedahzur, Canetti-Nisim, Zaidise, Perliger, & Bermanis, 2008). 이런 점에서 볼 때, 싸워 이기는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항상 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항재전장의식과 전시를 상정한 전투 준비이며, 특히 우리나라 병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치를 전투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사들 스스로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인지하며 전시를 가정하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실제 안보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군 복무를 했던 병사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심리 변화와 행동에 미친 영향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 분단의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고 도발의 목적과 양상은 각양각색이었으나, 다양한 도발상황 중에서도 본 연구자는 2015년 8월의 남북대치상황에 주목하였다. 해당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설정한 주요 이유는 당시에 전시에 준하는 높은 긴장감과 위기감이 지속되며 장병들의 자발적인 전역 연기라는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국가 안보 위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도발로 비무장지대 안에서 간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어 북한은 8월 15일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준 타격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고, 급기야 8월 20일에는 대남 포격도발을 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안보위기 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 수행 전력을 운용하며 긴장국면을 조성했다(문성묵, 2015; 김규남 2015). 남북 고위급접촉을 통해 8.25 공동합의문이 발표되기 전까

지 당시 남북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 최초로 휴전선 이북에 아군이 포를 발사했고 접경지역에서는 주민대피를 실시했으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때 전방사단 GP(감시초소)에서 병장 2명이 최초로 전역 연기를 희망한 이후로 부대에 남아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였고 상황종료 전까지 총 87명의 장병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하였다. 현역 장병의 전역 연기 신청과 더불어 예비역들의 참전 의지도 함께 표출되었다.

2015년 8월에 발생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주체들은 다양하다. 도발을 자행했던 북한, DMZ에서 작전 수행 중 목함지뢰로 인해 부상을 당한 간부,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던 장병, 8월 20일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던 전투현장의 지휘관과 병사들, 고위급 의사결정권자들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군사전략이나 작전수행과 관련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 전력 위협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거나(김규남, 2015) 남북협상과정에 대한 분석(문성묵, 2016), 전투수행과정 분석과 전투원의 구술사 기록(육군군사연구소, 2016)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징병된 인원으로서 전쟁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다고 신청했던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부대에 남기로 했던 이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모 병장은 “혼자 전역하는 것이 미안했고, 후임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모 병장은 “전시에도 간부들을 믿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역 연기를 결심했습니다.”라고 했다. 포병부대 소속 이 모 병장은 “마지막까지 K9 자주포 사수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서 모 병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조아미,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전장에 남는 병사들, 혹은 전투경험 이후 또다시 참전하는 병사들은 강한 동료애와 소속감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Henderson, 1985).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제1보병사단장이었던 테리 알렌(Terry De La Mesa Allen) 장군은 병사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싸운다(서경석, 2013)고 하면서 전우애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역 연기를 신청한 병장들은 이등병부터 병장 시기까지 경

험했던 부대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함께 지냈던 부대원들과 긴밀한 관계성과 응집력이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역 연기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군 내부의 정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병사들의 인지적, 감정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결과와 자기효능에 대한 기대를 유발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구승신 2005)는 점에서 전역 연기 병사들은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병사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부대원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 정서적 환경 만족도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종호, 1996; 김중섭, 1985)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병장들은 군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군 생활 적응도가 높고 군 생활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8월의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 신청을 했던 병장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그들이 그동안 어떠한 군 생활을 했었는지, 전역 연기를 결정하기까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한정하여 연구의 배경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장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와 동기를 탐색하고,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 군대 환경 조성과 교육 방법 및 내용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래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가지고 2015년 8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 군 생활과 전역 연기 결정을 내리는데 미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고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연구의 배경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병장들의 군 생활 경험은 어떠했는가?

연구문제2.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병장들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3. 연구자의 이해

질적 연구는 반영성(reflexivity)의 특징을 가진다(Cresswell & Poth, 2018). 이는 연구자의 직업 경험이나 문화적 경험과 배경 등을 서론이나 연구방법에 명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구자의 배경은 연구의 해석이나 연구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정혜민, 2021).

연구자는 평소 인간의 삶에서 사상이나 동기와 같은 정신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육군에 장교로 입대한 후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다양한 전사 사례와 야전부대 경험을 통해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전방 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였다. 정신전력교육이란, 국가관·안보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과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기본과제교육, 시사안보교육, 문화단결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백순근 등, 2020). 다년간 정신전력교육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와 닿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해왔다.

본 연구의 배경인 2015년 8월 당시에 연구자는 강원도에 위치한 A사단 예하 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도발 이후 경계태세가 격상되고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며, 전 장병 24시간 방탄헬멧, 방독면, 소총을 휴대한 완전무장하 대기태세를 유지했다. 지휘통제실에서 적기 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언제 폭격을 당해 산화될지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말 그대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최고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다. 수없이 반복하던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을 억누르며 부대 장병들은 모두 결연한 눈빛으로 각급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였다.

이 때, 연구자가 소속된 A부대에서 최초로 전역 연기를 신청한 병장들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 도중에 부대로 복귀한 간부들도 있었으며,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간부와 병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후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어 상황은 평시로 전환되었고 언론에서는 87명의 전역 연기 장병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군 생활 초년생 간부였던 연구자에게 그 사건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군 생활을 지속해나가면서 자주 상기되었다.

이후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분야로 선택하여 학습하면서, 위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떠한 학문적,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군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실제 한국군의 맥락 하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군인의 심리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특히, 실제 상황을 경험한 징집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교적 근래의 실제 안보위기 사례를 통해 병사들의 전장 심리와 동기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역 연기 결정의 정의

전역(轉役)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군에서 현재까지 복무하던 역종(役種)에서 다른 종으로 바뀜(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며 흔히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와 비슷한 말로 제대(除隊)란 규정된 기한이 차거나 질병 또는 집안 사정으로 현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제대군인법)에는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즉, 전역은 현역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며 전역 연기는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날짜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전역 보류, 전역 유예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전역 연기'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전역 연기 결정'은 2015년 8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실제 상황 발생 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병사가 전역 연기를 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에 훈련 상황에서 병사가 전역 연기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고, 2015년 8월 안보위기 상황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위협이 발생한 후 장병 천 여 명이 전역 연기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훈련 상황과 실제 상황 간 긴장감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2015년 8월 안보위기 상황은 일반적인 북한의 도발 양상과는 다르게 북한군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휴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서는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전시에 준하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다는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 하 전역 연기 현상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도발이 발생한 후 25일 남북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일 동안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은 총 87명이었다. 87명의 장병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육군 86명, 해병대 1명이며 20~25세의 병사(83명)와 부사관(4명)이었다(조아미, 2015). 본 연구에서는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87명의 간부와 병사들 중에서 중 전역이 임박했던 의무복무병사(병장)에 집중하였다. 당시에 전역

연기 신청자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역 연기를 신청하였는데, 상황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전역일이 늦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역이 임박한 시점에서 '상황 종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부대에 남겠다고 결정하고 전역 연기 신청서를 작성한 병장'을 대상으로 하며, 본고에서는 편의상 '전역 연기 병장'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참고로, 2015년 8월 안보 위기상황과 4차 북한의 핵실험 사태 당시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병사들이 늘어나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자발적 전역 연기자에 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6년 2월 23일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육군의 경우 그동안 자발적 전역 연기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보아 전역을 연기한 장병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보상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김현, 2016).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혹은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이들이 군인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현혜란, 2016). 해당 법률안의 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6년 2월 23일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병역법은 현역병에 적용하는 법으로, 두 법의 개정안에는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이 추가됐다. (2016. 2. 23. 연합뉴스 보도내용)

가.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의 목함지뢰도발로 초래된 안보위기 상황은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여덟 번 째로 선포한 안보위기 상태였다(김규남, 2015). 2015년 8월 4일 DMZ 내에서 목함 지뢰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 조사팀은 8월 6~7일간 합동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10일 오전에 발표하였다.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 목함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북한군의 DMZ 목함지뢰 매설은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추정되며 목함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 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 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이었다.

당시 폭발로 하재헌 중사 등 2명이 하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합동조사 결과 DMZ 목함 지뢰 도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확인되었고, 8월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우리 군이 도발에 대한 북한군의 책임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김규남 2015).

이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조치로서 국방부에서는 2004년 6월 남북합의로 중지되었던 대북 확성기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신대원, 2015). 지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작전으로 부분적으로 재설치 되어있던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활용하여 파주 1사단지역과 중부지역 및 중동부 전선과 서부전선 등 11곳에서 대북 확성기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였다(김규남, 2015). 8월 15일, 북한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대북심리전 방송재개는 북남 군사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행위다.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모조리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라"며 "불응하는 경우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이태동, 2015).

북한은 맞대응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위협적 발언을 지속하는 가운데 8월 20일, 대남 포격도발을 했다. 북한군은 연천 지역에 14.5mm 고사포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76.2mm 평곡사포(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하고, 155mm K55A1 자주포로 MDL 북측에 29발의 포탄을 쐈다(김철우, 2015). 이어 북한은 우리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내 (남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위협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어 긴급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왔다(문성묵, 2016).

북한의 김정은은 8월 21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고 북한군은 DMZ 지역 전방의

포병 장비들도 2배 이상 포진시켰으며 서해와 동해 기지에 정박시키던 잠수함 중 50여척을 잠항시켜 군사적 위협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문성묵, 2015). 우리 군은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한미 군 당국은 대북 정보 감시 체계인 워치콘을 2로 격상해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B-52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검토되기도 했다(김규남, 2015).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으며,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도 도발해올 수 있다”며 대응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강원도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대피소와 학교 등으로 대피를 실시하였는데 마을 노인들은 6.25전쟁 때 피란길에 오른 이후 대피령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정래석, 정윤호, 2015).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되어 CNN을 비롯한 세계 유력 언론은 전쟁으로 치닫는 것처럼 대서특필했다(김철우, 2015). 군사적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북측이 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마감 시한인 22일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비서 간 접촉이 시작되었다(김철우, 2015).

한편 북한의 선전매체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사들이 탈영을 하고 사재기가 만연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며 체제 수호를 위한 결집을 촉구하였다(유광석, 2015). 사회 일각에서 유언비어나 음모론이 유포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했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지하였다(국민일보, 2015). 특히, 8월 23일 최초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 2명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이후 전역 연기자와 휴가 조기 복귀자가 급증하였다. SNS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댓글이 쇄도하고 국방부 페이스북에는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에 "준비됐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라며 자신의 예비군 전투복 사진을 올리는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이재철, 김정환, 안갑성, 2015).

이러한 대국민적 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고위급회담을 무박 4일간 43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으로 진행한 끝에 8월 25일,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6개 조항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었다(박태근, 2015). 다음

의 <표 1>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서술된 위기상황의 세부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군사 안보에 저해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일 시	사 건	세부내용
8. 4. 07:35	목함지뢰도발	파주 H사단(간부 2명 부상)
8. 10. 09:00	군 당국 조사결과 발표	국방부-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
8. 10. 17:00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	중동부 및 서부 전선 11개소
8. 20. 15:53	820 포격도발	E사단 낙탄 확인, 연천 접경지역 주민철수
8. 20. 17:04	대응사격 29발(820완전작전)	E사단
8. 21. 16:00	주민대피	강원도 5개 지역 약 2000명
8. 21. 17:04	북한군 준전시상태 선포	북한군 핵심 3대 침투전력 배치
8. 22. 18:00	남북 고위급 접촉 개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8. 23 ~ 24.	전역 연기 장병 언론보도	A사단, E사단 등 22개 부대, 장병 87명
8. 25. 02:00	남북 합의문 발표	상황종료

<표 1> 2015년 8월 국가 안보위기 상황의 흐름

나. 전역 연기 결정의 해석

전역 연기자 현황에 대해 보도한 어느 기사에 따르면, 전역 연기 장병 중 80%이 가까운 인원이 최전방 근무자로 나타났다.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에서 전역을 연기한 이들이 전체 전역 연기자 중 79.5%를 차지했다. 부대별로 보면 E사단 소속이 가장 많다. 전역을 연기한 장병 5명 중 1명(20.5%)이 E사단 소속으로 18명이었다. 이어 A사단(15명), C사단(8명), D사단(6명), G사단(5명)순으로 나타났다. 휴전선 중서부에서 중동부에 이르는 최전방을 담당하는 부대들이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가

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았던 곳이다. 병과별로 보면 기관총 등 화력장비를 담당하는 장병들이 가장 많았다. 기관총(10명), 박격포(10명), 장갑차(7명), 자주포(2명) 등이다. 뒤를 이어 소총수(28명), 운전병(13명) 순으로 나타났다(최선, 2015). 해당 기사에서는 화력 장비는 특성상 전투 발발 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여서 고참병들이 자원해 전역을 미룬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역 연기 장병들 중 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박 모 병장은 “북한이 도발하니 전투의지가 더 확고해졌다”며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분대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역을 미뤘다”고 밝혔다. SNS에는 ‘언제든 불러만 달라’는 예비역의 군복 사진과 댓글이 달렸다. 병무청에는 군 입대 문의가 증가하고 적과 대치한 최전방이나 훈련이 힘든 곳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했다(문인수, 2015). 언론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전역을 연기하고, 예비군들은 군복을 꺼내며 인증샷을 찍는 등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新) 안보세대’가 대한민국 안보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신 안보세대’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냉철한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위기상황에서 개인보다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는 20~30대 젊은 신세대를 뜻하는 말이다(김상윤, 2015). 전문가들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영향을 받은 20대가 북한의 도발 사건까지 경험하며 축적된 북한에 대한 경험이 이 같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김용언, 2015).

또한, 일부 군사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당해 6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6·25전쟁과 같은 동란이 다시 벌어지면 참전할 것인가?’란 질문에 20대 남성의 91%가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사례로 들며, 과거 젊은 층의 느슨한 안보의식과 모호한 주적(主敵) 개념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신 안보세대의 달라진 안보의식과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주요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청년 세대의 달라진 안보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열과 전쟁공포증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실패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협상과 작전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상윤, 2015).

이와 같이 당시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한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한 현상에 대하여 어느 한 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안보 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들이 전방 부대에서 근무함으로써 긴장도가 높았거나 장비에 대한 숙달 정도가 영향을 미쳤을까?

전역 연기 장병들이 실제로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를 우선시하여 전역을 연기하고 참전 의지를 표명했는지,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전역 연기 장병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앞서, 2015년 8월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기록물, 군대 및 교육심리학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 연구 참여자와 그들의 전역 연기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구성하고자 한다.

2. 군 조직의 특성

먼저, 전역 연기를 신청한 병사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입대하여 군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군 조직 구성원, 군대에서 강조하고 교육하는 가치관인 군인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군 조직의 특성

먼저, 군 조직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절대적인 목적을 지니며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 구조와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특수한 집단이다(공중기, 1994; 이종호, 1996).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되고 훈련된 특수집단으로 사회의 다른 조직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즉, 군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며 국가 위기에 대처하여 군대를 관리하고 비상시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하여 국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사명은 희생이 따르게 되더라도 무조건 달성하여야만 하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게 되는 전투는 군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진석범, 2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투철한 충성심과 임전무퇴의 기상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의 의무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명령에 따라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전수정, 2021).

둘째, 군대는 국가의 지시와 군대의 목표 달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권화되어 있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위계적인 조직이다(민진, 2010, 손지원, 2006) 이러한 지휘체계는 강제와 규범적 가치를 추구하고,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 구조와 톱 다운(top-down)식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이혜영, 2011; 장경숙, 2007).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는 부대의 지휘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투수행과정에서 신속한 결심을 통해 원활한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임무수행능력을 가능케 한다(Halevy et al., 2011). 따라서 군 조직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상시 위기관리를 위해 상명하복의 위계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군대는 계급별로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공동체 유대감을 형

성하는 집단성이 강한 조직이다(구승신, 2004). 군 조직은 강력한 공동체의식을 지니고 있는 조직으로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동과 단결이 매우 강조된다(국방정신전력원, 2019). 군 조직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 목적으로 하며 군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Ahronson & Cameron, 2007). 전투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에 의해 유기적으로 수행되며 궁극적 목표인 승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단결과 조화로운 임무수행이 강조된다(최영찬, 2014). 그러므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전투수행역량보다 집단적 차원의 전술 수행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며(민진, 2011), 전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단결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권소영, 김완일, 2016; 엄덕희, 2013).

마지막으로 군 조직은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특성이 있다(구승신, 2004; Etzioni, 1961; Janowitz, 1971). 지휘관의 의도와 다른 조직 구성원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은 군 조직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자유보다 조직의 권위와 통제를 우선시한다(전찬부, 2016). 또한 군 조직은 전투라는 방법을 통하여 합법적인 무력을 행사하게 되며,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아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진석범, 2001). 군 조직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무력이 악용되어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행동범위와 생활을 규제하고 특정하고 있다(공중기, 1994; 이종호, 1996).

나. 군 조직 구성원의 특성

군 인사법에 따르면 군 조직 구성원은 병사(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와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과 준사관(준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 영관장교(소령, 중령, 대령), 장성급 장교(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로 계급을 구분하였으며, 서열은 계급의 순위에 따라 규정하였다.

장교와 부사관은 사회생활을 거치지 않고 20대 초·중반에 임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무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복무로 구분하게 된다. 단기는 대부분 의무복무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경우이며, 중기복무자는 10년을 전후하여 자의

나 타의에 의해 전역을 하게 된다(이지연, 김동삼, 2022). 직업군인은 일반적으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장교 및 부사관을 지칭하는데 법률적 의미에서 직업군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교,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복무자로 구분한다. 병영 의무, 의무복무,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자는 제외되며,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 군인에 해당된다(정광섭, 2008).

직업군인으로서 군대의 최상위 계급인 장교는 위관급 이상 계급의 간부를 말한다. 장교는 사관학교나 일반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가운데 선발되며, 부사관과 병을 지휘하는 계급으로 군 조직 내의 두뇌라 할 수 있다. 계급에 따라서 장관·영관·위관으로 구분되며, 직무는 군 조직의 편성 및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조직의 지휘와 체계관리, 각종 업무의 계획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정광섭, 2008). 부사관은 병사와 장교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서 각급 제대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병사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 부대의 전통 유지 등의 일상적인 업무와 더불어 장비 관리 및 유지, 운용 등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부사관은 군 조직의 업무를 구체화 및 감독하고, 교육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이끌어내는 기능적 요원이라 할 수 있다(김영종, 2013).

병사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군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군 조직 구성원의 70% 이상이 병사로 이루어져 있다(구승신, 2004). 현재 군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평균 연령은 21.7세이며 대부분의 병사들의 연령은 19세에서 25세 사이로 파악되며 인간의 발달 단계 가운데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해당한다(김옥란, 김완일, 2014). 이 시기 군대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가치관과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식이나 발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설정훈, 2018). 따라서 이들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사회에서 누리던 자유를 제한받고 학업 활동 및 경력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있어 군대 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구승신, 2004; 서혜석, 2008; 최명선, 구남웅, 2008).

연령대를 기준으로 세대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 조직 구성원은 대부분 MZ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MZ세대를 구분한 기준 연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M세대는 1980년대 초반 ~ 1995년대생으로, Z세대는 1996년 ~ 2000년대생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세대 군 조직 구성원을 MZ세대로 간주한다면 병사 전체와 일부 간부 계급이 이에 속한다. 이 중 간부의 경우에는 부사관 중에서 하사와 중사, 상사 일부가 속하고, 장교는 위관장교와 영관장교 일부가 MZ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병사는 20대 초중반의 전형적인 Z세대로서 평균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된다(이지연, 김병삼, 2022).

특히 최근 입대하고 있는 병사들은 특유의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데, 첫째,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며 자신의 확고한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자기주도성 성향과 둘째, 분명한 설명과 투명한 절차,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정성 중시 성향을 갖는다. 이들은 불합리하고 강압적인 요구에 스스로의 권리를 잃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받고 요구하는 데서 본인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임홍택, 2018). 또한 Z세대는 유년기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친(親) 디지털 세대로서,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적인 만남과 편리한 인간관계를 더 선호하며, 형식에 얽매인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임홍택, 2018). 이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입대 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구승신, 2004).

실제로 최근 병사들은 과거와 달리 지휘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기 보다는 병사 본인이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부대에서 생활하며 겪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거침없이 표현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군에서도 병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병영생활문화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장병들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었으나, 최근에는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군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병사들이 자기계발, 병영생활 소통창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군인정신

군인정신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 또는 규범(신상구, 2021)이라고 정의된다. 군인정신은 군인의 마음가짐이며, 사회학적으로는 군인의 가치관과 특성이나 속성, 의식이나 윤리규범이고, 기능적으로는 군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박균열(2018)은 군인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지향이라고 말했으며, 이태규(2012)는 군대에서 임무나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고유한 정신 또는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군인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였다. 결국 군인정신이란 '군인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마음가짐'으로 군인은 전쟁 상황이 되면 전쟁에 투입되어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녀야 할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군인정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투 의지인데 군대에서는 평상시에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군인정신을 강조한다(이영찬, 2022).

이영찬(2022)은 한국군의 군인정신 개념의 변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군인복무규율에서 군인정신을 '용기, 애국애족의 정신, 임전무퇴의 기상, 명예, 충성, 필승의 신념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확고하게 이념화되어 반공사상이 강조되었고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이후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종식되며 새로운 군인정신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육군은 군인정신을 새로 정립하기 위하여 1997년에 '장교의 도(道)'를 제정하여 '수신(修身), 수범(垂範), 위국헌신(爲國獻身)'의 3가지 가치관을 강조하였다. 2002년에는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라는 육군 5대 가치관을 정립하였다. 충성은 국가와 국민, 상관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용기는 정의감에 따라 행동하는 힘이며, 책임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마음과 행위이고, 존중은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며, 창의는 새로운 생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력이다. 2003년에는 '위국헌신'을 장교단의 정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3가지 실천지표로서 전투적 사고를 견지, 도덕성이 확립, 언행일치 하에 솔선수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교로 규정하였다.

2007년에는 '육군 문화혁신'을 제정하며 '사람 제일・자율과 책임・효율과 창의'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6개 분야(리더십 문화, 정신문화, 일하는 문화, 병영문화, 인재육성 문화, 교육훈련 문화) 31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만들었다. 2018년에는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꿔

서 군인의 기본권과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과 군인의 5대 정신을 명시하였다. 2019년에는 기존의 5대 가치관이 계급과 신분에 따라 덕목이 상이하다는 점, 신념화 및 행동화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3대 요소를 육군의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 위국헌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군인의 본분이고, 책임완수는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상호존중은 모든 군 조직 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이영찬, 2022).

3. 병사의 군 생활 관련 선행연구

가.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적응은 군대의 병사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변수들 중 하나이다. 군 생활 적응의 개념은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의 가치규범과 군대 문화를 사회화하고 군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개인에게 귀속하는 역할 개인화 과정을 통해 군에 순응하고, 병사의 행동 역시 군에 수용된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신태수, 1981). 즉, 군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군의 물리적, 정서 · 심리적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군 생활 적응이라 할 수 있다(권인혁, 2004; 김옥란, 김완일, 2014; 오현철, 2012; 조현묵, 2013).

Stouffer와 동료들(1949)은 군 생활 적응이 조직 차원의 임무수행에 대한 의지를 뜻하는 사기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측면으로 군 조직의 구성원인 병사가 군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직위와 직무에 만족하며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신태수(1981)는 군에 입대한 병사가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군부대의 행동양식과 가치, 규범을 익히는 재사회화와 군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과 임무를 스스로에게 귀속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역할 개인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군 조직에 동화되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신태수, 1981; 구승신, 2004).

군대에서 잘 적응한 적극적인 병사는 군대의 문화와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군대에서 부여한 임무에 대해 자발적인 자세로 임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전역을 한 이후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군 복무에 임한다(국방부 군종실, 2001). 이들은 군 조직에서 부여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군 조직에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하여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며, 군인으로서의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전역 후의 미래도 준비해 나간다(김옥희, 차주환, 2015).

이처럼 군 생활 적응은 병사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정서지능, 대인관계능력, 조직몰입, 진로결정 수준,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수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 생활적응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첫째, 입대 후 병사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유발 원인(권인혁, 2004; 손희락, 2001; 엄덕희, 2009; 이태우, 2011; 최혜란, 2009), 군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한동협, 2012; 조순영, 2003; 정희정, 2007), 둘째, 병사들의 여가활동과 군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박세희, 2012)가 있으며, 셋째, 개인의 성격적, 사회적 요인(김은미, 2011; 이선주, 2006; 금병규, 2010; 지향숙, 2014; 이태석, 2012; 권소영, 2013)에 관한 연구가 있다(노준 등, 2015).

한편, 병사들의 군대 생활 적응의 정도는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군 조직은 이것을 군 생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적극적, 소극적, 부정적으로 구분하며, 군대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병사들을 군대 생활 부적응 인원으로 분류하고 있다(국방부 군종실, 2001). 부적응은 조직에서의 갈등, 일탈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부적응하는 병사들은 군대 생활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군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잘 완수해내지 못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한다(엄덕희, 2012; 진석범, 2001).

군 복무 중 부적응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군무이탈,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병영생활교범, 2004). 이러한 군대 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병사 개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국민 신뢰 상실의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될 수도 있다(김효영, 2008). 이에 군에서는 이러한 병사들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병력 관리 시스템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국방부 군종실, 2001).

나. 병사의 군 생활 경험

군대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병영 부조리에 대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병사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대 이후에는 병영생활 부조리에 의한 자살 예방과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홍서현, 2013). 군인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군의 사고예방대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인 다각도의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언하는 연구가 있었고(윤민재,

2008) 군인을 부대시설의 소비자 혹은 사생활의 주체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보편적 시민성이나 주체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이재승, 2012).

군인이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전환적 관점이 점차 생겨나면서 군대 복무라는 경험에 대해 보다 심리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대 내에서 병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부적응자의 생활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강성록 등, 2012; 정원철, 박영주, 2012)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군 복무 경험에 대해 부적응 등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군 입대 지원자의 자발성이나 병영생활 환경의 영향력을 관찰하고자 한 연구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군복무 과정에 대해 접근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군대를 구성하는 조직원이라는 관점이 아닌 복무에 임하는 주체들이라는 차원에서 병사를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병사 개인의 복무에 임하는 관점과 그 주체성의 긍정적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홍서현, 2015). 예를 들어, 군 생활 경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병사는 어쩔 수 없이 군에 끌려왔다고 인식하는 병사들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몰입정도가 높았고, 다른 병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전동우, 2010).

특히, 최근 군 생활 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노준 등(2016)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군 관련 선행연구가 양적 연구들로서 군의 입장에서 병사들의 적응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군인들이 직면하는 군 생활의 적응에 보다 풍부한 본질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육군 병사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군 생활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에 관한 개인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현역 병사 6명과 예비역 병사 2명을 대상으로 육군 일반병사들의 군 생활에 대하여 각 계급별 경험과 현역과 예비역 병사들의 비교하여 그들의 군 생활 경험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육군의 일반 병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주는 초기 적응, 스트레스와 해소, 성장과 발전, 바람과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노준 등, 2016).

홍서현과 정태연(2013)은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예비역 병사 10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군 복무를 역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들의 군 생활 경험이 어떠한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군 생활을 원하고 군 생활이 개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병대에 지원한 병사들이 일반 육군 병사보다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해병대에 지원한 병사한 동기는 특별한 경험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군 복무 경험은 '혼란과 억압을 경험케 하지만 결국 지나가는 것', '나를 발전시키지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 관점을 확대시켜 연대적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요약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군 복무 경험은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발전을 받아들이게 해 준 것'으로 주제화되었다(홍서현, 정태연, 2013). 특히 해당 연구는 병영문화혁신이라는 과도기가 있었음에 주목하고 복무 기간별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하였고, 실제 전투 사건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군 복무의 의미부여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4. 국가 안보위기 상황과 병사의 심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소 군 생활 적응도가 높은 병사들이 군 조직의 가치 규범이 내면화되어 위기상황에서도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인으로서의 자아상을 확립하여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평시에서 위기 상황으로 바뀔 때 병사들의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지, 평시에서 위기 상황으로의 전환기에 병사들의 심리와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병사가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이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이전에 연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시 상황에서의 심리, 즉 전의고양, 참전의지나 전투동기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병사의 자발적 전역 연기 결정의 영향 요인에 대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가. 전장심리와 전의(戰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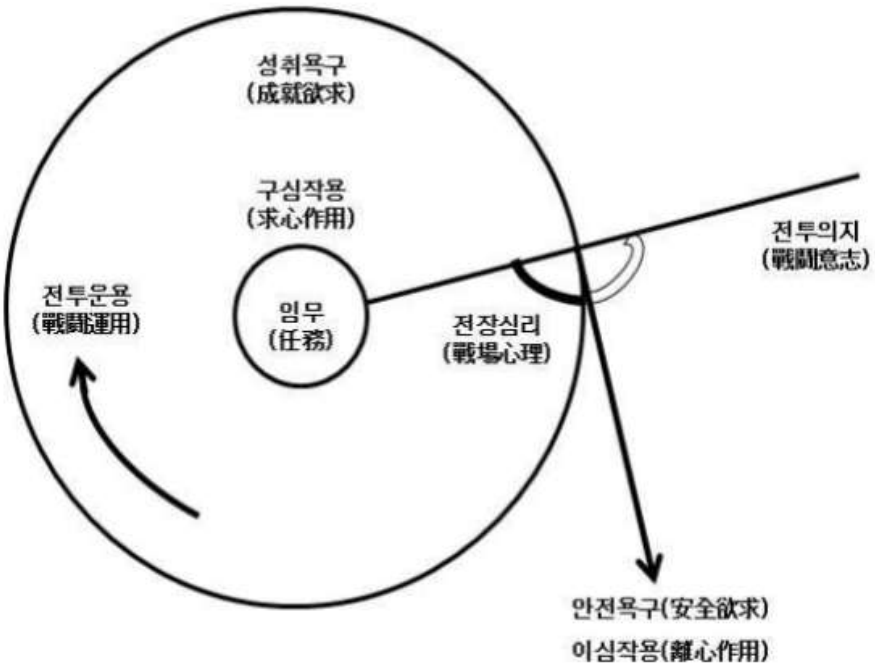
전장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들이 그 상황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 심리적 공간이다(신응섭, 1999). 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는다. 모든 인간은 제각기 다른 습성, 태도, 가치관, 성격적 요인과 학습, 경험 등에 따라 개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장심리(battlefield psychology)란 전투원이 직면한 전장이라는 특수한 생활공간에서 개인행동이 성격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전장이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내는 미묘한 심리적 상태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민, 1991).

전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첫째, 환경적 원인으로 작전 지역 온도와 날씨, 지형 등을 포함하며, 둘째, 생리적 원인으로는 수면, 영양, 물 부족 상태에서 높은 수행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셋째, 정서적 원인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경제적 염려, 가족의 안부와 건강, 파트너의 신의, 자녀 양육 등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원인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임무

와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인식이다(정태연, 2018).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함께 전장에서 나타나는 심리현상은 필승의 신념과 패전의식 공존, 공포, 유언비어, 공황, 지각능력의 저하, 가치기준의 하락, 동화의식 촉진, 전투신경증, 전투 피로증 등이 있다(육군, 2017).

이렇게 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현상과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한편 전투의지가 발현되기도 한다. 전의(will to fight)란,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전쟁의지'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전장 환경 속에서 전투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전력'으로 '자기 보존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국방부, 1983). 이러한 자기보존의 욕구가 전장에서 장병들에게 전투의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욕구가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전승의 기틀이 형성된다(이상복, 2017). 일반적으로 구심점, 자신감, 신념을 전의 고양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구심점이란 부대의 주체인 지휘관을 중심으로 동료애(전우애)와 부대에 대한 소속감으로 형성되고, 전투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부대원의 팀워크와 전투기술, 교육훈련의 결과 및 아군의 편제장비에 대한 신뢰성에서 비롯되며, 전투원의 신념은 전쟁목적과 당위성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본다(수도방위사령부, 1994).

이상복(2017)은 전장에서 장병들의 심리는 임무완수라는 성취욕구와 개인적인 안전욕구가 상반되게 작용한다고 하며 전장심리와 전투의지 간 관계를 <그림 1>로 설명하였다. 임무를 축으로 회전하는 것이 '전투운용'이고, 성취욕구로 인한 구심작용과 안전욕구라는 이심작용 사이에 '전장심리'라는 각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장심리와 대칭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전투의지이며, 이 때 전장에서 겪는 전장심리 현상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전의를 고양하고, 어느 정도의 불안과 공포 감정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하거나, 향후 일어날 위기 사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 자세를 갖출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장에서 불안과 공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의가 상실되고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불안과 공포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이상복, 2017).



<그림 1> 전장심리와 전투의지 간의 함수관계(이상복, 2017)

나. 부대 응집력과 전투동기

응집력(cohesion)은 조직 및 집단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으로, 소그룹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산업현장과 스포츠, 그리고 군대 관련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뤄져왔다 (Dion, 2000; Shields, Gardner, Bredmeier, & Bostro, 1997; Siebold, 2007). 그러나 응집력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통일되지 않았으며,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Manning과 Ingraham(1981)은 '그들(They)'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We)'로 표현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및 소속감으로 응집력을 정의하였고, Carron(1982)은 응집성에 대해 집단을 위해 단결하며 연합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Oliver와 동료들(1999)의 연구에서는 응집력을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과업지향적인 측면을 함께 가진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응집력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응집력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을 더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요인으로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단에 남으려고 하는 경향성에

대한 역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집성은 생산성, 적합성, 개인만족도, 행동변화, 그룹 구성원 간의 역할 명확성 및 그룹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며(Carron, 1982),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협동적이며 개인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최춘례, 2000).

군대 내 응집력에 대한 연구의 전통을 살펴보면, 부대 응집력의 개념이 '부대 결속(unit cohesion)' 혹은 '그룹 결속(group cohesion)'으로 다뤄져 왔다(정상근, 임훈민, 이보민, 2017) Siebold(2007)는 군대에서의 응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동료 유대감(peer-bonding)과 리더 유대감(leader-bonding)으로, 동료 유대감은 분대와 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집단에서 위계적 수준이 같은 구성원들(예: 분대원과 분대원)에 해당하며, 리더 유대감은 위계적 수준이 다른 구성원들(예: 분대장과 분대원) 사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 유대감(organizational bonding)과 기관 유대감(institutional bonding)으로, 조직 유대감은 구성원 개인과 한 단계 더 높은 집단의 관계(예: 분대원-소대)에 해당하며, 기관 유대감은 구성원 개인이 속한 집단의 차상위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단위의 집단과 개인의 관계(분대원-중대/대대/육군)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Siebold(2007)는 동료 유대감과 리더 유대감을 1차 집단 응집력(primary group cohesion)으로, 조직 유대감과 기관 유대감을 2차 집단 응집력(secondary group cohesion)으로 명명하였다. 즉, 1차 집단 응집력은 분대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집단에서 '분대원-분대원' 및 '분대원-분대장' 사이의 응집력을 뜻하며, 2차 집단 응집력은 분대원이 속한 분대의 상위 집단(소대급) 혹은 차상위 집단(중대급)이나 그 이상의 단위 집단(대대급/육군 등)에서의 응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Kirke(2010)는 특정 목표를 향한 공통의 몰입과 성취를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과업 응집력(task cohesion)과 집단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리키는 사회 응집력(social cohesion)을 추가로 설명하였다(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2016).

따라서 군대에서 응집력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며 구성원이 그룹에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Dyaram, Lata & TJ Kamalanabhan, 2005) 동기를 유발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김상기, 2009)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응집성은 전시 상황에서 병사들이 전투에 나가 싸우게 되는 전투동기(combat motivation)와 관련하여 가

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즉, 군인들이 왜 위험한 상황에서 부대에 남으려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Why they fight)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는 개념이 바로 응집력이었다(Pawiński & Chami, 2019). 이런 점에서 부대 응집력의 효과 연구는 대부분 결속을 전투참여 동기 및 의지의 설명변수로 제시한다(김인국, 2001; Gabriel, 1985).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자발적 참전의지가 상당히 고양되었는데, 이에 대한 가장 주요한 동기는 전투동료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자기희생도 불사할 수 있었다는 개념으로 확인되었다(McPherson, 1997). Griffith(2002)의 연구에서는 부대 응집력이 부대 유효성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부대와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부대 이탈의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전투준비태세(combat readiness)의 인식을 강화시킨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결속의 조절효과도 입증되었다(정상근 등, 2017). 또한 Woodruff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병사들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며 가족만큼 혹은 그 이상 더 끈끈하게 되며 집단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면 그것이 개인적 죄책감과 집단 내에서의 배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전투의 승리를 위해 단결을 중시하는 군대에서 응집력은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부대의 응집성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구희곤과 임수원(2011)은 군 병사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도에 따라 집단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높아지고, 구성원간의 만족감이 충족되어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정승교(2009)는 사관생도들의 스포츠 활동과 팀 응집성과의 연구에서 단체운동의 참여를 통해 팀원들 간에 우정관계, 구성원들의 상호존중, 소속감, 즐거움 등으로 응집력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임대환과 김동주(2014)은 특수부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가 집단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리더가 명령을 내리고 조직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 리더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신뢰감을 만들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Dabke, Deepika, 2016).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응집력에 관해 상관을 밝힌 선행연구로 원예은(2019)은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응집력, 군 생활 적응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다. 자기결정성 이론

앞서 군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 군인정신 및 의무복무병사들의 군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병사들의 평시 병영생활과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았고,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전장심리, 전투동기, 전의와 응집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이라는 집단과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군인들의 심리와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전통적으로 전투동기, 전의, 부대 응집력과 같이 전투상황에서 독특하게 발현된다고 간주되는 특정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많은 연구들은 특수한 군대 집단 및 전투상황에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동기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Ben-dor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예비군을 대상으로 평시와 전시의 복무동기를 비교한 결과 전시 교전 상황에서 복무동기가 더 높아졌음을 확인했는데, 복무에 대한 세부 동기요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해당 연구는 전, 평시 모두 집단적 가치보다 오히려 개인적 인센티브에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보고했다(Ben-Dor, Pedahzur, Canetti-Nisim, Zaidise, Perliger, & Bermanis, 2008). 송경재 등(2010)의 연구에서는 현역 병사들의 입대 동기가 군 생활 전반에 비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육군 병사와 해병대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내재적 입대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만족도가 높고, 군 조직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징병제 여부에 관계없이 입대를 결정한 집단과 징병제가 아니면 군대를 오지 않을 집단을 비교한 결과 군 생활 영향 평가, 군 조직 이미지 평가, 병영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대 전 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Pawiński와 Chami(2019)는 부대 응집력이라는 개념만으로 군인이 전투에 참전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전투 동기(combat motivation)는 부대 응집력(unit cohesion)이나 전우애와 같은 동료 간 유대(peer-bonding)가 동기 요인이며 전투 상황에서 군대의 수행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 동기를 단일한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과 타율성을 전제한 동기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을 통해 인간의 동기가 내재 동기에서 외재 동기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발달될 수 있다고 보는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기반하여 새로운 전투동기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현존하는 동기 이론 중 가장 포괄적이며, 경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이론 중 하나이다(Schunk, Pintrinch, & Meece, 2013).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만족되면 개인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발휘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됨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yan & Deci, 2000a). 이 이론은 개인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동기가 나온다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다. Deci, Ryan, Connell, Skinner와 동료들은 인간이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내재적 동기를 자기결정성(자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Schunk et al., 2013).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과제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흥미 때문에 행동하는 것으로, 수행의 유지와 증대가 용이하며 창의성, 자존감, 개인의 안녕감 등이 향상된다(Deci & Ryan, 1991; Deci & Ryan, 1995; Ryan, Deci, & Grolnick, 1995). 이에 반하여,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행동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외적 요인들은 내재적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본다(Williams et al., 1996).

Ryan과 Deci(2000)는 개인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내재적 동기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본심리욕구란,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 도전과 숙달경험을 추구하거나 효능감을 경험하려고 하는 유능성의 욕구,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욕구이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자기결정성이 증가하고(Ryan, 1982), 욕구가 충족된 정도에 따라서 무동기,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유형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Deci & Ryan, 1987). 또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동기와 정신건강이 향상되나, 좌절되면 동기와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한다(Ryan & Deci, 2000a).

한편, Deci와 동료들(Deci, 1980; Deci & Moller, 2005; Deci & Ryan, 1985, 1991;

Reeve, Deci & Ryan, 2004; Ryan & Deci, 2000)은 자기결정성을 의지와 구별했다. 의지(will)는 인간 유기체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자기결정성은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Deci, 1980). 자기결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작용하는 힘을 인식하며 선택을 하고 욕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김은주, 2007). 의지와 자기결정성은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결정적이려면 자신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Schunk et al, 2013). 만약 개인의 욕구가 모두 저절로 만족되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Schunk et al., 2013).

자기결정성이론은 인지평가이론, 유기체적 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 목표내용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의 하위 이론들은 사회적 맥락 속의 인간의 동기에 관한 미니 이론(mini theory)인데,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론이 아니라 선행된 이론을 보완해 나가며 순차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김아영(2010)은 자기결정성이론의 하위 이론 체계의 기본가정과 특성, 연계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 이론 중 기본심리욕구이론과 유기체적 통합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기본심리욕구이론

기본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ycal Needs Theory; BPNT)은 자기결정성 하위 이론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론으로, 학습상황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업무, 체육, 건강, 사회적 삶의 영역 등의 여러 영역에서도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Schunk et al., 2013). 기본심리욕구이론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느끼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수 영양소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심리욕구가 있다는 이론이다(Deci & Ryan, 2002). Deci와 Ryan은 세 가지의 타고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행동의 기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Schunk et al, 2013). 이는 자기결정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욕구로서,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Deci & Ryan, 2002).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과 관계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감에 대한 자율성의 설명력이 관계성의 설명력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2011). 즉, 이러한 결과는 Ryan과 Deci(2000a)가 설명한 것처럼 자율성에 대한 지지를 통해 유능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이수진, 2011). 자율성과 관계성의 관계는 두 개념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율성이나 관계성 욕구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 관계(Guisinger & Blatt, 1994)이다. 연구결과에서도 자율성이 높을수록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주, 2007).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통제감, 주체성, 자율성을 느껴 보고자 하는 욕구나 혹은 귀인이론의 관점에서 말하는 내적 인과 소재를 지각하고자 하는 욕구(Ryan & Deci, 2000)를 의미한다. Ryan과 Deci는 개인은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욕구가 있다고 제안했다(Schunk et al., 2013).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욕구로서 자율성(autonomy)이란, 행위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지각하고 있음을 정의하며, 자율적인 행동이란 내적으로 지각된 원인소재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행동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b, 김아영, 2010).

자율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 의존할 것을 선택한 행동 모두를 자율적 행동으로 본다(Deci & Ryan, 2002). 따라서 외부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율성의 반대되는 개념은 의존성이 아닌 타율성(heteronom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에게 통제나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Ryan & Lynch, 1989). 인간은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느낄 때 유능감이 발휘된다고 한다. 때문에 자율성은 유능감에 앞서는 가치로 세 가지 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Ryan, 1982).

교육 현장에서 자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성을 지지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고, 교사가 자율성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생들의 자율성이 증가하며, 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olnick & Ryan, 1989). 또한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고 학습내용의 기억이나 깊이

있는 학습활동을 하며,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종호 외, 2010; Grolnick & Ryan, 1989; Vallerand, et al, 1997). 반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통제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자율성의 욕구는 좌절되고,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의욕이 낮아지면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외, 2008).

관계성(relatedness)이란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타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낄 때, 또한 자신이 소속한 사회와의 연결성을 가질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0b). 관계성 욕구의 중요성은 애착, 사회적 지지, 관계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로움, 소속감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Bowlby, 1969; Sarason, Pierce, & Sarason, 1990; Peplau & Perlman, 1979; Baumeister & Leary, 1995). 주변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애착의 경우, 안정적 애착은 개인에게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여 낯선 상황을 적응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Kenny & Donaldson, 1991). 성인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은 특정인물과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여, 동료 및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다(이수진, 2009).

관계성이 높은 사람은 본인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이수진, 2011). 이러한 관계성 욕구의 충족은 외재동기의 내재화를 이끌고, 개인 간의 활동에서 내재동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Ryan & Deci, 2002). 반대로 관계성이 낮은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열등감, 우울, 슬픔 등이 심화되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Robbins, 1998). 즉,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립감에 빠지면서 우울과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과적으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위협을 받게 된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보고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미향 등, 2007).

유능감이란 자신이 사회적 환경과 교류할 때 효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하고,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유지시키고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1985; 김아영, 2010). 유능감은 주어진 기술이나 역량 그 자체보다는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을 느끼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효능감 혹은 능력감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이민희, 정태연, 2008). 유능감에 대한 욕구는 White(1959)의 이론에서의 환경에 대한 숙달 혹은 환경을 정복하려는 욕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욕구는 또한 귀인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해와 숙달의 욕구와도 유사하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과제나 활동, 더 넓은 범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Schunk et al., 2013).

박영신과 동료들(200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지각된 유능감(자기 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과 진로스트레스를 약화시켜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숙정 & 유지현,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몰입을 더 잘하여 더 좋은 학업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숙정, 20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유능감이 학습과 같은 특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수진, 2011)

한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욕구가 인간생활의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수진, 2011). Markus와 Kitayama(1991)는 문화권에 따라 자기관(self-construal)이 다르고, 이러한 자기관 차이가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행동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관이나 기대를 자신의 것으로 쉽게 수용하고, 비록 통제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양 문화권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2011).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보다는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인간 행동의 동기로 더 크고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수진, 2011).

2) 유기체적 통합이론

유기체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은 동기를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동기 유형이 일직선 위에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동기의 발달 과정인 내면화와 통합 현상을 설명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이다. 내면화는 개인이 어떤 외적 가치나 조절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통합이란 내재화된 규범이 완전하게 개인의 자아개념과 동화되는 경험을 가리킨다(이상우, 2010; Ryan & Deci, 2000a, 2000b).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핵심은 자율성이며 개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한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Ryan & Deci, 2004). 즉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타율적이고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자기 결정적)이고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까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Deci & Ryan, 1985). 이러한 개념에 따라, 자기결정성이 없는 상태인 무동기에서부터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외적 조절 동기, 주입된 조절 동기, 동일시 조절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내적 조절 동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Schunk et al., 2013).

무동기(amotivation)는 행동하려는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무동기 상태에서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가치부여나 특정한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을 취한다(오순애, 2001). 무동기 상태의 개체는 보상이나 유능감이 없어 과제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나 이에 따른 결과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Seligman, 1975; Ryan, 1982). 무동기는 학습자들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병연, 2002).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동기는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고자 동기화된 상태로써 자기결정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Schunk et al., 2013). 외적 조절 동기는 외재적 동기 중에서 자기결정성이 가장 부족한 상태이며, 시험이라는 외적 요구나 성적과 같은 보상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Deci & Ryan, 1985). 보상이나 마감 시간과 같은 외적 제약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인다(김아영, 2010). 이러한 행동에는 자기결정이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에 대해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김아영, 오순애, 2001).

내사(주입)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기란 자신과 타인의 평가에 따르는 인정이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김아영, 2010). 이는 행동의 내재화가 시작되는 단계로써 스스로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되는 상태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를 피하기 위한 내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형성된다(Deci & Ryan, 1985). 즉 보상이나 압력도 결국 타인으로부터 주입된 것이며, 조절의 힘 자체는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기결정성에 의한 것이 아니며, 주입된 조절 동기는 타율적 압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외재적 동기에 속한다(Deci & Ryan, 1985). 주입된 조절 동기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피하거나 자기가치감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며, 자아존중감에 기초하여 타인과 자기 스스로의 인정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Ryan & Deci, 2004; Hayamizu, 1997). 행동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외재적인 요인에 기초하지만, 조절의 힘은 개인 내부에 있어 심리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아영 & 오순애, 2001) 주입된 조절 동기가 강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쉬운 과제를 도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Ryan & Deci, 2000).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동기는 목표에 대한 내재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를 말한다(Deci & Ryan, 1985).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동을 하지만, 행동 자체에 대한 기쁨과 자기만족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재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시 조절은 여전히 내재적 동기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기에 외재적 동기로 분류된다(최병연, 2002). 그러나 외적 조절 동기나 주입된 조절 동기보다는 훨씬 더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에 의해 가치화하거나 내면화하는 수준도 깊다(김아영 & 오순애, 2001).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동기는 외적 동기 중에서 가장 자기 결정성이 높은 형태이며, 확인된 조절 동기가 자신의 가치, 목표, 욕구가 받아들여져 통합될 때 나타난다(Deci & Ryan, 2000). 통합된 조절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은 자신이 선택하여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내적 조절 동기와 공통점이 많지만, 수행 자체로 즐거움을 느낀다기보다는 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최병연, 2002). 이러한 통합된 조절 동기는 동일시 조절에 개인의 가치 혹은 신념과 통합되어 내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시 조절 동기나 내적 조절 동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김아영, 2002).

내적 조절 동기는 완전히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 즐거움과 만족감에 의한 것으로써 외부로부터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순전히 자발성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Ryan & Connell, 1989). 내적 조절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것은 과제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이며, 동기 유형 중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자기결정성이 높다. 내적 조절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 과제를 선호하고 호기심 때문에 과제를 수행한다(Ryan & Deci, 2000).

구 분	비자기결정적 ←				→ 자기결정적	
동기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자율성 조절의 종류	무조절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조절
인과소재	없음	외적	약간 외적	약간 내적	내적	내적
관련한 조절과정	무의도, 무가치, 무능력, 통제의 결여	외적 제한에 따름, 외적인 보상과 처벌	자기통제, 자아의 개입, 내적인 보상과 처벌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 가치를 둠	일치, 자각, 자기통합	흥미, 즐거움, 과제 자체의 만족감

<표 2> 자기결정성에 따른 동기유형(Deci & Ryan, 2000)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장들의 군 생활과 전역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15년 8월 자발적으로 전역연기 결정을 했던 인원들(현재 민간인 신분) 중 일부와 당시 상황을 증언할 현역 및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상황을 다룬 뉴스기사와 방송 등 언론 보도내용을 살펴보고, 각종 문서와 영상 등을 참고자료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언론보도와 참고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한 후, 7년 전 전역 연기 신청을 했던 예비역 병장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연구문제 제기

▼

언론보도 분석, 문서 및 영상자료 수집

▼

연구 참여자 모집, 면담문항 제작

▼

면담 실시

▼

면담 분석결과 해석

▼

결론 및 논의

<그림 2> 연구의 흐름

질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다층적 관점을 확보함으로써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유형과 분석의 다각화(crystallization)를 갖추고자 노력한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 앞서 조사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검토함으로써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연구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해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를 만나 면담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를 추적 확인하고 면담의 문항을 제작했으며, 면담 분석 결과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언론보도의 분석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은 연구 참여자와의 직접적인 개별 면담 내용이다. 면담 실시 목적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으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포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의 분석은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예비역 병장과 더불어 진술 내용을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전역 연기 신청자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일부 간부(현역/예비역)들을 포함하였다.

2. 언론보도 내용분석 과정

가. 분석대상

연구주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진 과정은 분석 대상인 신문기사와 방송 보도를 선별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신문기사와 방송에 대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의 항목을 설정하고 보도의 성격에 따라 기사 및 방송을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11개 중앙지, 전문지, 방송사를 대상으로 전역 연기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와 방송 자료를 선정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8개 중앙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제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지역종합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빅카인즈에서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조선일보와 국방일보의 신문기사를 각각 조선일보 DB(http://db.chosun.com/history), 국방일보 기사검색(www.kookbang.dema.mil.kr)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글(www.google.com)과 네이버 뉴스(www.news.naver.com)의 뉴스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둘째, 신문 기사와 방송을 선별하였다. 기간은 전역 연기 신청이 최초로 발생했던 2015년 8월 20일부터 상황종료 후 사후 인터뷰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검색창과 각 신문사 홈페이지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전역 연기’ 혹은 ‘전역연기’를 검색하여 신문기사를 선별하였다. 기사가 제외되거나 검색상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네이버와 구글에서 ‘전역 연기’(‘전역연기’)를 다시 한 번 검색하여 누락되는 뉴스기사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색된 언론보도는 총 524건이었다. 그 중 전역 연기 장병들에 관한 보도를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적은 내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첫째, ‘전역’이나 ‘연기’ 키워드만을 단순 포함하여 내용상 관련이 없는 언론 보도이다.(예: 모 배우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한 후 다시 연기

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 둘째, 전역 연기 장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도 중점이 달라 해당 인원의 전역 연기 이유나 군 생활 경험에 대해 알 수 없는 보도를 제외하였다.(예: 전역 연기 장병들이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참관했다는 보도) 이 중, 첫 번째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였고 헤드라인 단계에서 제외가 가능했지만, 두 번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기사전문을 상세히 읽고 검토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연구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검토 결과 최종 118편의 뉴스 기사가 선별되었다. 취재 방법에 따라 군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사용한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내용이 중복되는 언론사가 상당수 존재했다. 그 외에 생방송 전화 인터뷰, 다큐멘터리, 심층 취재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선별된 기사를 대상으로 보도 성격에 따라 사실 위주의 보도와 주장이 드러난 보도를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전역 연기 장병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 내용(예시: “전우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고”)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로 판단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설’, ‘칼럼’, ‘오피니언’으로 기사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설’과 ‘칼럼’, ‘오피니언’에는 해당하지 않는 뉴스이지만 그 내용 속에 전역 연기 장병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이 포함된 보도가 상당 부분 존재했다. 이 경우 인터뷰 내용이 “ ”로 직접 인용된 부분과 의견 및 해석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분석방법

기준에 따라 선별된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이란,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체계적 코딩 과정을 통해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Hsieh & Shannon, 2005). Weber(1985)는 이러한 내용분석의 장점에 대해 폭넓은 내용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정된 시간에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추적 비교할 수 있어 현재의 입장에서 여러 측면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별된 언론보도 기사와 방송의 원문을 대

상으로 먼저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개방적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담긴 의미와 행위를 요약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름, 즉 코드를 부여하였다(Charmaz, 2006). 개념의 이름은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인 진술에서 드러나는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코딩하였으며, 이것이 다른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의미를 포괄할 때는 같은 코드를 사용하였다. 둘째,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단계이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와 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초기 코드를 선별하여 범주로 발전시켰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 각 연구 참여자들의 코드를 다른 연구 참여자의 코드와 지속해서 비교하면서 동일한 현상이 다른 개념으로 명명되었는지, 다른 현상이 같은 개념으로 명명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과 현상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도록 하고, 코드 간 의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축 코딩(axis coding)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선택코딩에서 종합된 코드를 중심으로 하위범주를 형성하여, 중심 현상과 관련되는 상호 작용과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최종적으로 코드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축 코딩, 개방 코딩, 선택 코딩을 유연하게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분석결과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드는 총 15개이며, 하위 범주는 5개, 상위범주는 연구문제 2개로 정리되었다. 언론보도 내용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범주	하위 범주	코드	빈도	코드 의미
군 생활 경험	생활태도	적극적인 임무수행	8	각종 임무 수행 시 솔선수범하는 자세
	주변 동료의 평가	간부에게 인정받음	5	간부로부터 인정받음 임무수행 우수로 표창수여
		후임에게 존경받음	4	모범적인 모습으로 후임에게 존경받음
전역 연기 영향	상황 인식	전시 상황	12	국가가 위기에 처함
		군인 신분	10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라는 의식

요인 전역 연기 영향 요인	개인 간 요인	전우애	33	정든 전우들과 함께 하고 싶었음
		신뢰	2	군대와 전우(간부, 병사)에 대한 신뢰
		가족	3	가족(참전용사 조부, 조모, 동생)을 생각하며 전역을 연기함
		정서(미안함, 죄책감, 걱정)	10	혼자 전역하는 것이 미안했고 남은 사람들이 걱정됨
	개인 내적 요인	마무리 의지	27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감	16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애국심	15	나라가 있어서 국민이 존재한다는 생각
		책임감	13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자 함
		도움 의지	6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싶었음
		정서(분노)	4	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분노

<표 3>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 (연구문제 1, 2)

1)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

전역을 연기한 병장들이 상황 발생 전까지 그동안 군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소수의 언론 보도만이 다루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도가 전역을 연기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어, “동고동락한 병사들과 함께” 등 전역 연기 이유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병사들 간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범주(연구문제1)에 대한 코드는 총 3개, 하위 범주는 2개였다.

아래 내용은 이들의 군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전역 연기를 했던 한 병장을 밀착 취재한 기사에는 소속 부대의 중대장과 후임병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중대장은 전역 연기를 신청한 모 병장이 성실한 임무수행 자세와 바른 인성으로 분대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분대에 소속된 후임병은 그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분대원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즉, 해당 전역 연기 병장이 군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으며 상 하급자

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이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C 병장에 대한 지휘관과 동료들의 시선도 따뜻하다. 본부중대장인 J 대위는 "각종 임무 수행 시 성실한 자세로 간부들에게도 모범이 된다"며 "분대장으로서 따뜻한 인성으로 분대를 이끌어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후임 분대원인 B 상병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분대원들을 이끌고 가르쳐주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국가와 전우를 위해 전역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나이가 나와 같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매일경제 2015. 9. 4.)

> S 병장은 적극적인 병영활동으로 동료 전우와 간부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작년 11월 작계시행 훈련 기간에는 설영대 임무까지 겸하는 등 헌신적 군 생활로 대대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경기일보 2015. 8. 24.)

2)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보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연구문제 2)은 총 3개의 하위 범주와 12개의 코드로 분류되었다. 하위 범주와 코드는 상황인식(전시 상황, 군인 신분), 개인 간 요인(전우애, 가족, 정서, 신뢰), 개인 내적 요인(마무리 의지, 자신감, 책임감, 애국심, 도움 의지, 정서)으로 나눌 수 있었다. 코드의 양적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전우애'와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자신감', '애국심', '책임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 전우애

> J, 육군 ○사단 △연대(병장) "제가 전역을 하고 선임들과 함께 제주도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매했었는데, 상황이 터지면서 항공권을 바로 취소하고 전역연기를 건의했습니다. 저는 동고동락한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시기보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하셨습니다." (YTN 2015. 8. 24.)

육군 ○사단에 근무 중인 D(22) 병장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보면서 전역연기를 생각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21개월 간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뒤로 하고 GOP를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전역을 미룬 이유를 밝혔다. (동아일보 2015. 8. 24.)

나) 마무리 의지

육군 ○사단 소속 22살 동갑내기로 모레(8월 25일) 전역 예정인 이들은 최근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전역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대를 떠나는 것이 미안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뜻을 부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2015. 8. 23.)

다) 전시 상황 인식

○사단 예하 대대 G 병장(23)은 9월 2일 전역 예정임에도 "21개월간 정들었던 전우들만 놔두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혼자만 떠날 수 없었다"며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평생전우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역 연기를 결심했다. (새전북신문, 2015. 8. 27.)

라) 정서(북한에 대한 분노), 책임감

I 병장은 "도발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15. 8. 24.)

○사단 GOP 대대에서 근무하는 H 병장(23)은 "나처럼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전우가 적 지뢰에 부상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뉴스1 2015. 8. 24.)

마) 군과 전우에 대한 신뢰

"도발 소식을 접하고서 전우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대기했다"는 조 병장은 "우리 전우들은 군을 믿고 서로를 믿었기에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5. 8. 27.)

바) 참전용사의 후손

[앵커]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역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도발한 상황에서 같이 군 생활을 한 군인들을 놔두고 나오기가 미안했고 또 군인이라면 당연히 개인보다는 임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희 가족들과 부모님과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에게 당당한 아들이고 손자이고 싶었습니다. (YTN 2015. 8. 27.)

사) 애국심

"제가 휴가를 내고 전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라며 "제가 나가도 부모가 쉴 곳이 없고 제 자식이 살 땅이 없고 나라가 없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조 병장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먼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진 뒤 "아들이 만약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참 용감했다고 칭찬해주세요"라고 죽음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TV조선, 2015.8. 28.)

언론 보도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코드와 범주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역을 왜 연기하고 부대에 남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이유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중첩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배경이나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전역 연기 현상의 복합성과 중층성, 내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동고동락한 전우들과 조국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우애와 애국심, 마무리 의지 등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으나, 이를 별개로 떼어놓

고 분절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단순히 빈도를 측정하는 양화(量化)하는 방식은 개인과 환경,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전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동기, 후임병, 분대/소대/중대원, 간부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조국을 지킨다.'라는 표현에서는 화자가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어떤 대상인가, '끝까지'는 무엇에 대한 끝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상황종료만을 뜻하는지 혹은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언어로 표현된 부분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이 현상의 일부만을 표면적으로 드러낸다는 속성을 고려할 때 각 단어와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처 표현되지 않은 기저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통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3. 면담 분석 과정

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섭외하는 연구 참여자의 조건은 2015년 8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경험하였고 전역을 앞둔 병장으로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부대에 신청을 하여,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시 전역 연기 신청자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방일보(2015년 8월 26일자)를 비롯한 신문기사와 방송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인원은 총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으로 병사(83명)와 부사관(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 연기 신청자 중 전역이 임박했던 육군 병장으로 한정하였기에 연구의 참여자로 섭외될 수 있는 인원은 총 82명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인터뷰에 오랫동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군 생활 간 경험한 사건과 감정을 풍부히 회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하는 화자들은 대화 중 유발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억들을 직면할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인원들이 전역을 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자와 어떠한 연고도 없는 87명의 전역 연기 병장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더욱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많은 난관을 겪었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먼저 언론보도 검색을 통해 소속부대와 이름을 확인하였고, 공개된 SNS 계정 중 많은 동명이인들 가운데 식별하여 해당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역 연기 병장들을 찾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한 인원들을 제외하고, 3명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으로 2명을 추가 섭외하였다.

추가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나 실제

상황조치를 수행했던 현역 간부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이들은 전역 연기 신청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황적 증언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특수한 배경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교차검증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섭외하였다. 간부2, 3은 전역을 연기했던 예비역 병장 2명(병장2, 3)이 근무했던 B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이었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장2 3이 복무했던 부대의 상황과 분위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휘관으로서 조치한 부분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간부1은 전방 A부대의 사단장이었으며, 간부4는 8월 20일 포격전을 직접 수행했던 간부로서 실제 상황조치 현장에서의 긴박함과 당시 전투에 참여한 병력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름과 소속부대를 모두 가명 처리하였고 참여자 구분을 위해 병장1, 2, 3 4, 5, 간부1, 2, 3, 4로 표기하였다. 최종적으로 섭외한 연구 참여자는 5명의 예비역 병장과 2명의 현역 간부, 2명의 예비역 간부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단위에 대한 바람직한 사례 수를 설정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료수집 단위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식에 따른 지침을 추구하기보다 연구 주제의 복잡성과 자료수집의 깊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Yin, 2010; 문지윤, 신태섭, 2015) 연구 참여자를 9명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군대 관련 선행연구(홍서현, 정태연, 2013; 노준 등, 2016)에서도 8~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분	참여자	계급	당시 소속	부대 위치	직책 / 특이사항
1	병장1	예비역 병장	A부대	강원 화천	GOP대대 탄약계원
2	병장2	예비역 병장	B부대	경북 대구	항공대대 인사계원
3	병장3	예비역 병장	B부대	경북 대구	항공대대 교육계원
4	병장4	예비역 병장	C부대	강원 화천	정비대대 차량정비병
5	병장5	예비역 병장	D부대	경기 양주	정비대대 차량정비병
6	간부1	예비역 소장	A부대	강원 화천	병장1 소속부대 사단장
7	간부2	예비역 중령	B부대	경북 대구	병장2,3 소속부대 대대장
8	간부3	현역 소령	B부대	경북 대구	병장2,3 소속부대 중대장
9	간부4	현역 소령	E부대	경기 연천	8월 20일 포격전 지휘관

<표 4> 연구 참여자 명단

질적 연구자는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의 결과로 드러난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과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야 하며 표집한 사례를 연구 방법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연구의 맥락과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김영천, 2019). 목적 표집은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표집방법으로 정의된다(김영천 등, 2019).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병장1은 강원도에 위치한 전방 A부대에서 GOP 대대 탄약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초로 전역 연기 신청을 했던 병사들 중 한 명이다. 간부1은 2015년 사건 발생 당시 병장1이 소속됐던 전방 A부대에서 사단장 직책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예비역 소장의 신분으로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간부1은 사단장으로 재직 당시 병사들의 복지와 사기, 정신전력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부대를 지휘했는데, 특히 월 단위 '사단장의 영상편지'와 '지휘서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병사들에게 군 생활의 보람과 미래 설계와 같은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다. 2015년 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A사단에서 최초로 2명이 전역을 연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병장1을 포함하여 전역 연기 신청을 했던 A사단 소속 인원이 총 15명이었다. 이 때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병사들이 전역 연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병장2는 대구에 위치한 부대에서 교육계원으로 근무하였고, 병장3은 같은 부대에서 인사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둘은 입대일이 하루 차이가 나는 동기로, 자대 전입 후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고참이 된 후에는 각각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제대 후 복학하여 학업을 마무리하고 기업체에 취업하여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간부2는 2015년 8월 당시 병장 2,3의 소속부대를 지휘하는 대대장이었으며, 현재는 예편 후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간부3의 당시 계급은 중위로 병장2,3이 소속한 본부중대의 중대장이었으며, 진급 후 현역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병장2,3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간부2,3에 대해 알게 되어 연구자가 이들에게 별도 연락을 취하여 섭외 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병장2와 병장3은 면담 도중 간부2,3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으며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Ⅳ. 결과' 파트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병장4는 강원도에 위치한 C사단 예하 정비대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전역한 뒤 대학에 복학하여 졸업했고 공업계열 전공을 살려 모 연구

원의 인턴으로 경험을 쌓은 뒤 현재는 관련 분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있었고 최근에는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기도 했다. 병장5는 경기도에 있는 D사단의 정비대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군 생활을 했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했었다. 그에게 있어 군 복무는 귀중한 경험의 장이었고 진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는데, 전역 전에는 꿈이 없었으나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꿈을 위해 준비하며 미술 강사로 일하고 있다.

간부4는 2015년 8월 당시 경기도에 위치한 E부대에서 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0일 북한이 우리 지역에 포격도발을 하자 상급부대 지휘관의 작전명령에 의거 포대 병력들을 지휘하여 북한지역에 직접 대응사격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서 긴박했던 실제 전투현장을 묘사하고 후일담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연구자가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7년 전 상황적 분위기를 다시 회상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함께 했던 포대 장병들이 전투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전우애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일부 병사들은 군 복무 지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하사로 지원하여 해당 부대에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

나. 자료수집

질적 연구는 느낌, 사고과정, 감정과 같이 기존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추출하기 어려운 현상에서 복잡한 세부사항을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도승이,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안보위기 상황에서 병사로서 전역을 연기한 이유, 구체적 상황, 군 생활 경험 등을 수집하였다. 반구조화 인터뷰 기법은 주제와 기본적인 질문은 미리 준비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다(Dowson & McInerney, 2003).

본 연구에서는 병사의 군 생활 경험에 대한 홍서현 외(2013) 연구에서 쓰인 면

담 문항을 문헌 고찰하였다. 또한 언론에서 전역 연기 병장을 대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과 육군군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연천지역 포격도발 구술사를 참고하여 예비역 병장과 현역 및 예비역 간부에 대한 면담 문항을 각각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항에 대해 교육심리전공 박사 1인과 육군 현역 간부 2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는 작업을 거쳤다. 면담 문항은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지속하여 후속면담 시 활용하였다.

면담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역 병장에 대한 문항은 '당시 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입니까?', '부대에서 평소 간부, 동기, 후임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전역 연기 결정을 할 때 부모님 혹은 주변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군 생활과 남북대치상황을 경험한 것이 본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전역 연기라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이 있다.

현역 및 예비역 간부에 대한 문항은 '2015년 8월 남북대치상황에서 지휘관으로서 지각한 부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상황 발생 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개인적인 심경은 어떠했습니까?', '상황 발생 이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황 발생 이후 병사들의 태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병영문화혁신운동이나 부대 운영과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 조치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전역을 연기했던 모 병사가 지휘관 정신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평소 어떤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하셨습니까?' 등이 있다.

이상의 문항을 토대로 하여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유도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이나 설명에 대한 요청을 하는 질적 탐구전략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Irving, 2012). 특히, 연구 참여자가 겪었던 군 생활 중 생긴 일화, 남북대치상황 이후에 발생한 변화 등과 같이 면담이 진행되면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과거의 구체적 기억에 대한 회상을 유도하고, 보다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는 연구현장에 실재하는 어떤 것을 단순히 수집되는 것(collection)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연구자의 상호주관으로 구성하여 생성되는 것이다(Koro-Ljungberg, MacLure, & Ulmer, 2018). 따라서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상호-구성된 자료야말로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는 방법이다(전가일,

2020). 본 연구는 현역 군인인 연구자의 내부자적 관점을 활용하여 전역 연기 결정의 주체인 병장과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간부들의 상호주관을 통해 자료를 구성하고 수집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거주 혹은 근무하는 지역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일부는 비대면으로 Zoom 화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했다. 예비역 병장 5명에 대해서는 모두 대면으로 각각 1회씩 1~2시간 진행하였으며, 현역 간부인 간부3과 간부4는 부대 훈련 및 대기 등으로 인해 비대면(Zoom)으로 1회 약 2시간 진행하였고, 간부1과 간부2는 대면으로 1회 약 1시간 30분 가량 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 9명에 대한 총 면담시간은 937분이며, 평균 104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네이버 'CLOVA Not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성녹음을 실시하고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전사하였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육군 병장의 군 생활 경험과 전역 연기 결정의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를 통해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데 유용한 기법(Yin, 2016)이기에 본 연구 목적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그 사회에 알려진 바가 많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방법(전주람, 신윤정, 2019)으로,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탐구라 할 수 있다(유기웅, 2013)

Yin(2009)은 사례연구의 유형을 사례 규모를 기준으로 단일 사례설계(single-case design)과 다중사례설계(multiple-case design)로 나누었는데, Herriot와 Firestone(1983)는 다중사례가 일반적으로 단일사례보다 설득력 있으며, 더 공고한 연구로 인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전주람, 신윤정, 2019). 그리고 분석단위(unit of analysis)가 소집단이라면 그 집단 내에 속한 사람들(사례연구의 직접적인 주제)과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사례연구를 위한 정황)이 명확히 분석단위로 구분되어야 한다(Yin,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역 연기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육군 병장 5명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간부 4명을 연구 배경의 정황적 증인

이자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사례 연구방법론을 통해 육군 병사들이 경험한 군 생활과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의 의미를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생생하게 드러내 보고자 한다. 즉, 질적 사례 연구방법론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육군 병장이 전역 연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정황과 영향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의 절차는 첫째, 각 면담을 실시한 이후 녹음된 내용을 바로 전사하였으며, 전사록을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전사 내용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중간 중간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였다. 둘째, 원자료를 분절(segmenting)하여 사례별로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다. 의미 단위의 구성은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육군 병장의 군 생활 경험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분절하며, 원자료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코드화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에 나타난 참여자의 관점을 따라 관련 주제어를 분류하며,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에믹 코딩(emic coding)을 실시하였다(전가일, 2020; 조용환, 2019). 셋째, 범주화 단계에서는 전역 연기를 신청한 다섯 명의 사례 간 지속적 비교를 통해 공통적인 하위범주로 수렴하였고, 하위범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답이 될 주제를 찾아 상위범주로 주제화하였다. 이때 참여자의 관점에 기초하는 에믹 코딩과 더불어 연구자의 관심에 기초하는 에틱 코딩(etic coding)을 상호보완적으로 겹치면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렬시키는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을 병행하였다(Saldana, 2009). 수집한 자료의 코딩 결과는 ‘Ⅳ. 결과’의 ‘2. 사례 간 분석’에서 <표 5>와 <표 6>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94)가 제시한 신뢰성 확보 방법은 질적 연구 논문에서 타당도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영천 등, 2019). 대표적으로 삼각검증, 심층적 기술, 참여자의 피드백, 연구자의 성찰, 동료들과의 비평 작업, 참고자료 활용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다각화하고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동료연구자 상호검증(peer debriefing)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 관하여 소속부대와 임무 등 배경정보를 파악하고, 전역 연기 당시 작성했던 출정서(유서)와 상황종료 이후 작성한 소감문, 육군에서 발급한 표창, 전역 연기 병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 동영상 자료,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검토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동료연구자 상호검증을 위해서 질적연구 수행의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과 교육학 석사과정생 2명, 지휘관 경험이 있는 육군 장교 2명에게 협조하여 연구진행과 분석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자료 분석의 단계마다 연구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검증 과정을 거쳤다.

라.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No. 2210/004-008)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관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였고 심의 과정을 거쳐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제시하며 설득하였다. 즉,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본 연구가 군대의 정신전력교육 발전과 병력관리, 교육심리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모든 예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간, 보상 지급, 위험요소 등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녹음 및 녹화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녹화 파일과 녹음 파일은 전사가 완료된 이후 삭제되고, 전사된 내용이 담긴 파일은 연구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이중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은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직접 면담,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여러 가지 연구윤리 보장 방법들을 사용하

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연구자의 의무를 명시한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연구 활동의 구체적 과정,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과 소속부대는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Ⅳ.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8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자발적으로 신청했던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한 사례 내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사례 간 분석에서는 전체적인 코드를 생성한 이후 사례들 간 공통되는 주제와 차이점을 밝혀내어 범주 및 주제를 도출하였다.

1.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

가. 병장1: 전시에 함께 싸우고 싶었던 전우들

1) 군 생활 경험

병장1은 입대 전, 군 생활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군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에서 한 번 밖에 없는 경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친형이 의경으로 복무했었고, 형처럼 의경을 지원하라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육군 현역병에 지원하여 입대했다. 그는 A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훈련이 힘들어서 이틀 만에 의경으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어차피 들어왔으면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소대장 훈련병에 지원하여 선발이 되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목이 쉬면서까지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그는 원래 향후 보직으로 신병교육대대의 조교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조교에 떨어지고 특기가 포병 포반으로 분류가 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졌다. 자대로 전입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탄약 계원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중대장의 제의로 탄약 계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탄약 계원으로서 주로 했던 일은 대대의 사격 훈련 간 탄 수급 및 회수, 거점 탄약고 순찰 등이었으며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자주 했다. 그는 군 생활 초기에 몇 가지 부정적인 기억들을 갖고 있었는데, 신병 시기에 여자 친구와 헤어져서 전역하는 날까지도 많이 힘들었고, 생활관에서 별 것 아닌 사소한 일들로 고참병들이 횡포를 부렸으며, 탄약 반장이었던 모 상사가 잘해주기도 했지만 말을 세게 해서 상처를 받기도 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 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이 잘 맞아서 휴가도 잘 안 나가려고 했다. 일부러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영내 PC 사용 공간)도 거의 가지 않았고, 전화도 안 했고 사회랑 소통이 되면 나가고 싶을까봐 군 생활에만 집중했다. 그가 군 생활이 잘 맞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기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편이어서 초반부터 A급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부대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간부들과도 두루 소통하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대대 탄약 계원으로서 임무를 하며 관계로 인해 불편한 점이 없었다. 적응력이 좋고 임무를 성실히 잘하니 주변 간부들이 전문하사에 대한 제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는 정해진 군 생활 내에서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었다.

2) 전역 연기 결정

그렇게 군 생활에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그는 병장이 되었다. 병장1이 말출(마지막 휴가)을 다녀와서 전역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8월 20일에 북한이 포격도발을 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실제 상황이라고 했고 병력들은 생존성 보장을 위해 모두 소산지로 대피했다. 병장1은 전역을 앞두고 반납했던 장구류를 다시 착용한 후 탄약고 앞에서 부사수와 같이 계속 대기했다. 그는 전방부대 탄약고는 전시에 가장 중요한 곳이며 그만큼 적의 공격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결코 움직인 적이 없었던 전시용 탄을 옮기며 그는 적의 폭격을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웠다. 싸우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면 '그게 내 팔자겠지.' 라고 생각했다.

기다렸던 8월 25일, 병장1의 전역 날짜가 임박해 오고 있었으나, 그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부대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임들과 농담으로 '형 이러다 전역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는데, 그는 진지하게 같은 부대의 동기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조금 고민을 한 후 바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전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전시에 예비군 부대로 소속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임무로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자신이 제일 잘 아는 현재 이 부대에서,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미 숙달된 주특기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군 생활만큼은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고, 고참인 자신이 없으면 부사수가 힘들 것 같다는 걱정과 책임감이 들었다.

인터뷰 말미에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당연히 북한'이라고 답변하면서, '또 다른 적은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은 이미 부대원들과 모두 친해지고 이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거리낌 없이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시 상황에서 불신이 더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그 때로 돌아가게 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군 생활 동안 주변 사람들과 재미있게 잘 지냈기 때문에 했던 결정이지, 자신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면 즉,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역 연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병장2: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당연한 일

1) 군 생활 경험

병장2는 고향이 군부대와 밀접한 곳이었다.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고, 친한 이웃집 아저씨들이 대부분 해병대 출신이라 자신도 당연히 해병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주변에 일찍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육군 모집병에 같이 지원하자는 권유를 해서 합격을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가 입대한 날이 12월 30일이었는데 군 입대에 대해 무덤덤했고 별다른 감정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군대에 대해 친숙했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로 인해 단체생활이 익숙해서 군대 생활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전입을 했는데, 그의 맞선임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을 하다 온 사람이었고 후임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힘들어하는 인원들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병장2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힘들었지만, 맞선임에게 일부러 더 맞추고 잘하려고 노력해서 괴롭힘을 상대적으로 덜 당했다. 병장2는 대대 작전과와 지휘통제실에서 교육계원으로 근무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군 생활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느껴졌다.

한편, 병장2는 일과 시간에 업무를 한 것 외에도 다른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대대장(간부2)과 중대장(간부3)이 병사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꼈고, 전역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병장2 스스로도 주변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간부, 동기, 후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업무 외 활동으로는 밴드 동아리에서 키보드를 담당하여 부대개방행사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다. 부대개방행사는 병사들의 부모님을 부대로 초청하는 행사로, 생활관과 부대시설 소개, 병사들이 준비한 공연과 이벤트, 세족식 등을 진행했다. 또한 병장2는 일과 이후에 독서를 많이 했는데, 병사들을 위해 보급되는 '진중문고'를 통해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의 구절로 '논어'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꼽았는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으며, 군인 신분인 자신도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평소 생각이었다. 그는 개인 체력 단련도 열심히 했는데, 모 준위가 병장2를 좋게 보고 부대에서 그와 함께 꾸준히 10km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2) 전역 연기 결정

이렇게 병장2가 군 생활을 이어오던 중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국가중요시설 방호라는 부대 임무로 인해 B부대가 적의 타격 1순위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포함한 부대원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대대장(간부2)는 부대원 모두에게 출정서를 작성하여 몸에 지니도록 지시했고, 병장2는 유서가 될지도 모르는 출정서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휴가도 반납하고 전역도 연기하려 합니다. 제가 나가도 부모님이 쉴 곳이 없고 (중략) 지킬 나라가 없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먼저 항복하지 않겠다"며 "제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잘 배웠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후임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전역 연기를 결심했다. 그는 전역을 연기한 이유들이 비슷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부대에 오래 있었으니까 제일 잘 할 수 있고, 애들(후임병들)한테 긴장 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본인이 가장 고참병이고 분대장이기에 부대에 대한 경험과 지식, 임무 숙달에 대한 자신감, 유능감이 있었고, 이어 책임감과 함께 후임들

에게 긴장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는 전역 연기라는 행동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뛰어가서 구해주는 상황과 비슷하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장2는 만약 부대원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더라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은 다시 돌아가서 관계성이 다른 상황에 처하더라도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똑같이 전역 연기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 병장3: 가족보다 우선했던 전우애와 국가공동체 의식

1) 군 생활 경험

병장3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했고 그는 입대 시 인사행정 특기에 지원했다. 그는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정말 가기 싫었고 두렵기도 했다. 그냥 관심병사만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군에 들어갔다. 처음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해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크나큰 성취감을 얻었다. 자대를 B부대로 배치를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인사행정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선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했고 최대한 빨리 업무를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신병 시절 선임들로부터 받는 눈치와 구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고참병들은 전역을 하고 자신도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병장3은 특히 인터뷰 간 대대장(간부2)과 중대장(간부3)에 대해 자주 언급했고, 부대 간부들을 다 보고 싶다는 그리움의 감정을 표현했다. B부대는 병사보다 간부의 인원수가 더 많은 부대였는데, 병장3은 인사 계원이었기에 부대 간부들의 군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고 간부의 휴가를 종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그는 임무수행도 할 겸 대대의 모든 간부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친근하게 지내곤 했다. 대대 간부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병사들을 자신의 조카, 동생, 아들처럼 여겨주었기에 부대원이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은 뜻 깊은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B부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대장(간부2)과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자

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간부와 병사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지휘방침을 가지고 멘토(간부)-멘티(병사)를 매칭하여 함께 추억 만들기, 텃밭 가꾸기, 월 1회 이상 함께 식사하기 등 간부와 병사들 간 소통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또한 대대장이 직접 병사들에게 부대의 작전과 전시 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하며 '우리 대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병사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했고, 군인이 군인다워야 함을 자주 강조하였다.

실제로 병장3과의 개별 인터뷰에서도 그는 대대장(간부2)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전력교육(구 정신교육)을 많이 실시했다고 회고했다. 병장3이 교육을 듣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메시지는 '군인은 군인이다.'였다. 말 자체에 아무런 꾸밈도 없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대장이 평소에 '군인은 자세도 올곧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몸소 군인다움을 솔선수범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고 항상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병장2는 정신전력교육을 통해 군인의 정신과 자세를 갖추는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대의 임무와 자신의 개인 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전역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임무는….'이라고 유창하게 설명했으며, 전쟁이 나면 부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병사들과 간부들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분대장이 되어 후임들을 지도할 때에도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며 FM대로 할 것을 강조했다. 화장실 갈 때 총을 두고 가는 병사에게 '전시에 총기는 너의 생명이다', 훈련 전 군장검사를 하며 '전시에 모포 안 챙겼다가 얼어 죽을 거냐?'라며 혼내는 엄격한 분대장이었다.

한편, 그는 분대장으로서 힘들었던 점이 더 많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자신은 원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분대장이라는 직책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분대 병사들의 대표로서 중간에서 간부와 소통해야 한다는 책임감,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후임병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는 특히 병영문화혁신운동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임병의 입장에서는 '나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라는 보상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후임들은 선임들의 노력이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 더 많

은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전시를 대비하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대에서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병사들에게 군인의 본분과 정신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며 병사계급의 진급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 전역 연기 결정

병장3은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휴가 중이었는데, 부대에 있던 후임들로부터 힘들다는 연락을 받고 빨리 부대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는 대대의 간부들과 후임들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휴가를 복귀한 후 장시간의 대기로 인해 지쳐 있는 후임들을 다독이며 '진짜 전쟁이 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은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출정서(유서)를 작성했는데, 대대장, 중대장 등 정들었던 간부들, 후임들의 이름을 적었고 '저는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현 소속은 군인 신분이고 국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에 전우들과 남아서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전역을 연기할 당시 가장 걱정되고 생각이 많이 났던 사람들은 간부들이었다고 말했다.

병장3은 병장2와 마찬가지로 전시에 자신이 소속된 B부대의 임무 특성상 적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다. 이에 일개 병사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가장 화가 났으며 부대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커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전방으로 가서 총 한 발이라도 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전역 연기를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며 말리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고 결국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

병장3은 나중에 상황이 종료된 후 전역 연기로 화제가 된 것에 대해 군인으로서 당연한 결정을 한 것뿐인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기분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전역을 한 이후 한동안은 부대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는데, 자신이 썼던 유서를 볼 때마다 부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기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종이를 태웠다고 한다. 지금도 여전히 전역 연기 당시를 생각하면 다시 감정이 울컥하고, 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부들과 동기, 후임들을 모두 다 보고 싶고 이들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 병장4: 인정 욕구 충족과 자기만족 지향

1) 군 생활 경험

병장4는 입대 전에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신체검사에서 현역 급수를 받지 못했으나 3번의 재검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남자라면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라는 그 형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 그동안 병장4 자신은 소극적으로 살아왔는데 군대를 통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좀 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 하셨던 이야기를 그가 어려서부터 종종 들으며 자랐기에 군에 대해 거부감이 덜했다.

그는 군 생활 초기부터 매사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노력했다. 그는 C사단의 정보통신대대 차량 정비병으로 보직을 받았다. 자대로 배치 받고 신병 전입훈련 때 야간사격을 했는데 만발을 해서 포상휴가를 받았던 것이 그에게는 첫 보상과 인정이었고, 이를 통해 군 생활을 원동력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 병장4는 군 생활 중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는데, 일병 초반에 '기왕 하는 거 좀 빡센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사단의 수색대대에서 하는 10일간의 정예 수색훈련에 자원하여 참여했다. 보통 부대에서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무수행 중에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때 당시 중대장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그의 자세를 인정하고 지지해주었고 행정보급관도 그를 격려해주었다. 그가 훈련을 무사히 끝마친 후에 해냈다는 성취감과 포상휴가에 대한 만족감, 레펠과 수색 흉장을 받았다는 자부심 등을 가지고 군 생활을 지속해 나갔다. 그는 각종 행사나 임무수행에서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 포상도 많이 받고 분대장도 빨리 하는 등 부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는 차량 정비병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부대 인원들이 공구를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 사용할 때 찾기가 어렵거나 분실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고, 자발적으로 정비관에게 건의하여 '공구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구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다. 또한, 그는 정비병 임무와 별개로 '또래 상담병'을 하면서 부대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병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소통하려고 노력했

다. 부대의 취사병이 갑자기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선임 취사병들을 생각해서 취사 지원을 돕기도 했다.

2) 전역 연기 결정

병장4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전역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전역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긴장감은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부대원들이 지쳐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부대에서 인정받으며 군 생활을 잘해왔는데, 후임들과 같이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후임들로부터 받은 인정과 개인적인 만족을 유지하고 싶었다. 또,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인생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 그리고 만일 전쟁이 나면 어차피 모두가 위험하고 전역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생각과 함께 전역이 좀 늦어지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여겼다.

요약하자면 병장4는 전역을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주변의 인정과 자기 만족이 약 50%, 전우와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40%, 나머지 10%는 임무 완수를 위해서였다. 그는 군 생활 중 '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목표 의식이 없이 안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군 생활을 하며 삼았던 목표는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기보다는 군 복무 기간을 개인적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기에 북한에 대한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우'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의지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전우는 경쟁 상대로서 자극을 주고받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고, 체력이든, 사격이든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거나 그 사람을 한 번 뛰어넘어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 병장5: 특별한 경험을 통한 자기 성장의 기대

1) 군 생활 경험

병장5는 입대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군대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입영통지서를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군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보통 진로를 많이 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신도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인생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그는 군 생활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좋았다고 회상했다. 훈련소에서도, 자대에서도 선임들로부터 폭언, 폭행이나 부조리가 전혀 없었다. 간부들도 다 좋았고 후임들과도 재미있게 지냈다. 기억에 남는 간부는 차량정비주무관, 중대장과 행보관이고 후임들 중에서는 같은 생활관에서 친하게 지냈던 4명을 꼽았다. 그 중 2명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병장4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3개월 후임이었던 한 친구가 항상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장4는 맞선임과 개월 수 차이가 많이 나서 분대장을 일병 계급에 일찍 하게 되었는데, 분대장을 하면서 임무를 잘해야 하고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점차 생겨났다. 군 생활 중 훈련 횟수가 많았음에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다만 그의 보직인 차량 정비병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것은 조금 힘들었다.

2) 전역 연기 결정

병장5의 전역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고, 처음에는 전역 연기 신청에 뜻이 없었다. 그런데 혼자서 생각하다가 군 생활 중에 경험해보기 힘든 희귀한 실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까 호기심이 생겼고,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 그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혹은 애국심으로 전역을 연기한 것은 아니었다. 전역 연기 신청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자신이 만약 부대원들

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즐겁게 군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역 연기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

가.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육군 병장들의 군 생활 경험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입대 전, 입대 초기, 적응기, 고참기 4개의 주제로 구조화되었고 12개의 하위범주와 24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의미 단위 분석 및 에믹 코딩(emic coding)의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코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원 자료 표현을 최대한 살려 함께 제시하였다. 코딩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1.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			
주제	범주	코드	의미 단위 / 원자료 표현
입대전	군대에 대한 선입관(이미지)과 정서	군대에 대한 호기심	“군대라는 곳이 좀 궁금했어요”
		입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엄청 가기 싫었고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었죠”
		군 생활 유경험자의 영향으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군 생활을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	군 생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인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보자”
		입대 유형의 자율적 선택	“무조건 육군으로 들어가겠다”
입대초기	개인 내부 요인	적극적인 자세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어요”
		생존을 위한 적응 노력	“살기 위해 열심히 했던 거죠”
	개인 간 상호작용	주변의 인정과 칭찬과 성취감	“주변의 인정이 원동력이 되었죠”
		내무 부조리를 상대적으로 덜 겪음	“저는 (부조리를) 별로 안 당했던 것 같아요”
		기존 관계의 단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기	부대원 간 긍정적 관계 형성	간부와 인격적 관계 형성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병사 간 유대관계 형성	“선임들도 동기 후임도 다 좋고”

	집단 내 역할에 대한 유능감과 책임감 형성	임무에 대한 숙달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보면 쉬워요”
		책임감 형성	“제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힘들 때 돕고 배려하면서” “도울 수 있는 여유는 있다”
	부대 환경 및 분위기의 영향	병영문화혁신운동이 영향을 미친 부대 분위기의 변화	“병영문화혁신으로 좋아진 것도 있고”
		많은 업무와 강도 높은 훈련	“훈련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교육적 영향	정신전력교육과 지휘관의 모델링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교육으로 영향을 받고”
	적응의 결과	군 생활에 재미를 느낌	“할 만하다, 재미있었어요.”
고참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감	선임병과 분대장의 무게	“분대장이라는 부담감이 엄청 심했어요”
		간부-병사 간 중간 역할	“중대장님이랑 후임들 사이에서”
	자율성 증가	계급이 올라가며 자율성이 생김	“계급이 올라가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위계질서 내에서 갈등과 조화	부조리 개선 노력과 보상심리	“부조리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보상심리는 누구나 있어요”
		후임들이 따름	“후임들이 많이 따라줬어요”

<표 5> 면담 분석결과(연구문제1: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

1) 입대 전

㉠ 군대에 대한 선입관(이미지)과 정서

병장1은 입대 전에 군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고 군대 생활이 자신의 인생의 한 번 밖에 없는 시간이기에 제대로 체험을 해보고 싶었다. 병장5는 입대 전 두려움도 있었지만, 군 생활이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병장1 일단 호기심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제 친형은 의경을 갔거든요

병장5 두려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임 병장 같은 워낙 이런 게 나왔다고 저는 들었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전역 연기 신청을 했던 예비역 병장들은 전반적으로 군대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거나 주변에 먼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군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병장2는 해병대 출신 아버지의 영향과 함께, 학창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단체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고 주변에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친숙함이 있었다. 병장3은 고등학교 선배와 수색대대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 군 생활을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군 생활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병장4는 스스로에 대해 “입대 전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이었다고 회고하며, “군 생활을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로 좀 삼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입대를 했다.

병장4 이제 입대하기 전에 좀 저한테 기억이 좀 남았던 게 동네에 이제 있던 형이 이렇게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 형은 4급 판정으로 이제 공익을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한 세 번 정도의 재검을 받고 그리고 3급 현역 급수를 받아가지고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남자라면 좀 군대에 다녀야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런 게 멋지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나도 군대에 가서 지금까지 좀 그러저러하게 살아왔던 게 좀 터닝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대를 하게 됐고.

병장5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적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어차피 생활이 힘든 거는 다 똑같으니까.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입대 유형이나 특기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였다. 그러한 선택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병장1 그래서 저도 의경을 가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었는데 죽어도 이제 육군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현역을 들어갔던 거여서.

병장2 먼저 해병대에 계속 지원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걔네가 몇 번씩 떨어지니까 모집병을 공고를 봤었나 봐요. 저한테도 이제 같이 하자 저도 이제 그때는 기말고사 끝날 시점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때 지원을 했고.

병장3 제 보직이 311 인사행정 보직이어서. 애초에 지원을 할 때부터 인사행정으로 기술 행정병으로 지원을 했어요.
연구자 모집병? 거기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병장3 제가 체격이 왜소하잖아요. 그래서 몸 쓰는 일보다는 그래도 머리랑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인사 행정병이었죠.

2) 입대 초기

㉠ 개인 내부 요인

연구 참여자들은 입대 이후 군 생활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는 입대 초부터 스스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군대 적응 초기 계급이 낮을 때는 선임들에게 혼나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했던 측면도 있었으며, 하다 보니 적응이 돼서 계속 열심히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병장4는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인정을 받았다는 뿌듯함과 성취 경험이 군 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말했다.

병장4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 좀 나서려고 많이 하긴 했어요. 잘 하면서 훈련이 됐든 아니면은 좀 어떠한 상황이 됐든... (중략) 좀 이등병이나 일병 초반에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병장4 야간 사격을 했는데 잘 안 보였지만 썼는데 이게 만발이다라고 해서 그게 좀 첫 보상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때 2박이었나 3박 포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성취감이나 뿌듯함 이런 거를 맛봐가지고 (군생활을 하는데) 좀 원동력 있게 될 수 있었어요.

연구자 군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는 게, (중략) 이것만큼은 열심히 하고자 했던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병장1 그냥 살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가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적응이 돼 버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가 아니더라도 이미 몸에 익었으니까.

㉡ 개인 간 상호작용

연구 참여자들은 군 복무 당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주변 부대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처음 자대로 전입 당시 다른 동기와 비교되어 선임들에게 'A급'라는 첫인상을 심어주게 되었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태도에 대해 간부 및 선임들의 칭찬과 인정,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장1 저는 상대적으로 그 친구보다 잘하니까 되게 막 A급 소리를 듣고... 그 친구는 이제 못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 친구 좀 혼내라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병장3 그런데 군대라는 게 좀 다 모두가 평등선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에 되게 피드백이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부대 내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걸로 저는 만족했어요. 그 당시에 또 포상 휴가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좀 달달해 보이기도 했고.

참여자들이 대부분 군 생활을 전반적으로 좋은 기억으로 묘사했지만, 군 생활 중 어려움을 아예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병장1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실감을 경험했고. 고참들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다.

병장1 차인 거? 여자친구한테 차인 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음 날에 아버지가 수기로 편지를 되게 명언 막 20가지 막 적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매일 울고 전역하는 날까지. 저희 나눠주는 일기(수양록) 있잖아요. 거기에 적었던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그때는 그랬죠. 이병 때. 신병 휴가도 나가기 전이었어요. 신병 휴가를 되게 늦게 보내주더라고요 저희 사단이.

병장1 신병 거기 들어가면 소대장 훈련병 그런 거 뽑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패기롭게 지원을 해서 소대장 훈련병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조교가 되게 저를 괴롭혀서 많이 힘들었고..

5명의 참여자들 중 2명은 본인이 선임 병사로부터 폭언과 부조리 경험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군대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괴롭힘을 다른 병사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겪었던 측면이 있고, 부조리 가해자인 고참이 전역을 하고 자신의 계급이 올라간 후에는 간부, 동료, 후임들과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던 동기에 비해 빨리 적응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비교대상이 되었고, 괴롭힘을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자 신교대에서 조교가 괴롭혔다고 했는데 자대에 가서도 고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참들이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병장1 있었죠. 없을 리가 없죠. 그냥 tv 보는데 앞으로 지나갔다고도 욕 먹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욕 먹었던 것 같아요. 옆에 중대는 맞고 애들한테.
(중략) 조금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같은 달에 들어오면 동기잖아요. 그 동기가 소위 말하는 되게 적응을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는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었고. 그 친구는 적응을 되게 못하는 편이어서 모든 이런 고참들의 비난이 그 친구한테 갔었죠.

3) 적응기

㉠ 부대원 간 긍정적 관계성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간부를 가까이 지켜보고 간부와 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직책을 살펴보면, 병장1은 대대 탄약계원, 병장2

는 교육계원, 병장3은 인사계원으로 이들은 간부와 함께 일하고 접촉이 많은 계원들이었다. 상급자-하급자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간부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간부가 위계적인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하는 권위적이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었고 간부와 병사가 고유한 임무수행의 주체로서 상호 존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병장 2,3가 근무했던 B부대는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대로서 임무 특성상 병사보다 간부(조종사)가 더 많았다. 병장2,3은 B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간부2)과 중대장(간부3)에 대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다.'며 수차례 언급하였고, 간부2, 3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병장2.3은 중대장(간부3)과 전역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최근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며, 병장3은 지금도 부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간부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병장 4,5는 각각 C사단과 D사단의 정비대대에서 정비병 임무를 수행하였고, 지휘관계에 있는 간부들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과 전반적으로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다.

> 병장1 근데 저는 이제 탄약 계원이다 보니까. (중략) 타 중대 간부들이 어쨌든 탄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랑도 이제 몇 번씩 소통하다 보면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서 불편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 병장1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누구한테 좀 잘 맞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겠다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간부님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고.

> 병장3 대대장님, 중대장님, 2분대원들 그리고 부대원들... 이런 내용이 (출정서에) 쓰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사 계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부들하고도 엄청 가깝게 지내고 병사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좀 더 다가가기 쉽잖아요.

> 병장3 저는... 군대에 대한 기억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대대 간부)을 다 보고 싶고,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군번도 다 외웠었고... 지금도 보고 싶죠. (중략) 그리고 한편으론 다행이었던 게, 나는 그렇게 생각(병사를 무시)하는 간부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자기 조카, 아들 아니면 동생 이렇게 다 여겨주는 분들만 만나서

뜻 깊었던 군 생활인거 같아요.

병장4 수송관님한테 (제가 나서서 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수송관님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생활했던 병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병장4는 선임들이 자신을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병장5도 선임들이 모두 다 좋았으며 부대 내에 부조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했다. 후임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병장4는 부대 내에서 임무 수행이나 관계에 있어 누구에게나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임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병장5는 분대 생활관에서 후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냈다. 특히 모범적으로 생활을 잘했던 한 후임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병장1은 부대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정이 쌓였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병장4 제 아버지 군번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전역을 했지만 저보다 1년 이렇게 앞선 달에 들어온 그분은 취사병이셨어요. 저를 좀 챙겨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후임들 저한테는 선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랑도 계속 좀 얘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어차피 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중략) 좋은 기억으로밖에 안 남아 있어요.

병장1 정이 쌓일 만한 특별한 이벤트적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정이 쌓였던 거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 집단 내 역할에 대한 유능감 및 책임감 형성

병장3은 처음에 인사계원의 수많은 업무를 익히는 것이 어려워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 업무에 대한 기록을 했고 인수인계서 바인더를 만들어 나갔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임무수행이 반복되면서 숙달이 되었고 나중에는 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병장4는 차량 정비병으로서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비부대 특성상 공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 스스로 공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서 하겠다고 간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병장3 제가 인수인계서 다 만들었죠. 인수인계서 다 만들고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일 생길 때마다 인수인계서는 계속 작성하는 건 습관화돼가지고... 병사는 병 인사정보체계고, 간부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각종 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거 보는 거 동영상 해서 하고... 병사들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tmo 끊어주는 거, 간부 휴가 명령, 병사 휴가 명령, 대대 인사 명령 이런 거, 그 다음에 간부들 복지, 식수 인원 체크하는 거.
(중략)
나중에는 엄청 쉬워요. 이제 한 3년쯤 되면 그냥 하고 이게 가끔씩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에 추가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정정 명령이 제일 힘들었죠. 휴가를 다 짰는데 이제 나 이것도 휴가 못 나가, 이거 먼저 옮겨야 돼 이런 게 많잖아요.

병장4 행정 계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두잖아요. 배차계 이런 식으로. 공구 이런 쪽으로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건 따로 보상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공구 차량 정비에 쓰이는 공구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는 거죠.
연구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병장4 네. 사실 '공구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매번 저 외에도 다른 정비병들도 그렇고 운전병들도 그렇고 간부로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맡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 만들고.

병장2는 업무가 많고 바쁜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특히 부대 교육훈련과 전반적인 부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계원이라는 직책 특성상 더욱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 업무량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병장2는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서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했다.

병장2 저는 원래 쉬는 시간이 있는지 몰랐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쉬는 시간이 원래 있나요? (중략) 근데 뭐 저는 뭔가 바쁜 시즌이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니까 도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연구자 그러면 이제 간부들 퇴근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하고, 주말에도 막 나와서 하고?

병장2 가끔씩 밤새고 하기도 하고….

병장3은 정비병이라는 임무와 별개로 군 생활 적응을 어려워하는 소위 도움 배려 용사(당시 용어는 관심병사)들을 돕는 또래상담병 직책을 병행하며 소통하는 역할을 했고, 행군 훈련 때는 선두에서 기수(부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역할)를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후임의 군장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는 행군하면서 발에 물집이 잡힌 적이 없었다며 본인의 체력이 좋은 편이라 도울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이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것은 부대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힘과 여유가 있기 때문이었고, 돕는 행위 자체를 통해 인정을 받으며 유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병장4 또 상담병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과)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연구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신 거네요.
병장4 그렇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관심병사로 등록이 돼 있는 이런 그런 친구를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하기도 했고. (중략) 저는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병장4 (행군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한다 해서 좀 친하기도 했고 후임이었거든요. 그 때 막내급의 후임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게 무겁냐 내가 들어줄게 했어요. 그때 1호차가 지나가면서 쟤(병장4)는 깃발도 들고 군장도 2개를 들고 있는데 저 친구 잘한다 뭐 챙겨줘라 해서...그것도 훈련 포상을 나중에 좀 받았던 것도 있고 이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냥. (중략) 사실 좀 재미 삼아서 했던 것도 있긴 했죠. 훈련이라고 해서 다 사실 힘들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군... 저는 물집이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군 그렇게 막 별로 그렇게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친구한테 이게 힘드냐 장난치면서 좋아해서 했던 건데 그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는 있다.

㉢ 부대 환경 및 분위기의 영향

참여자들은 소속 부대의 업무량과 훈련량이 많았던 것으로 회고했다. 특히 병장1은 전방 GOP 현행작전 A부대의 탄약계원으로서 업무가 많았고, 일을 많이 하는 간

부와 같이 맞춰서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병장2, 3이 소속된 B부대는 후방이지만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임무가 복잡하고 다양했다. 당시 B부대의 교육계원이었던 병장2는 바쁜 시즌에는 야근과 밤샘업무가 잦았다고 회고했는데, 교육훈련 등과 관련되어 필요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했고 다 같이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B부대의 대대장(간부2)은 '강한 교육훈련이 최고의 복지이다'라는 지휘방침을 가지고 부대 운영을 했는데, 병장3은 '전쟁 나면 잘 버틸 수 있게 훈련 때 우리 애들을 확실하게 굴렸던' 대대장이 그 때는 원망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 병장1 저는 계원이다 보니까 주말에 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근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개인 정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다 일을 되게 많이 시켜서.

> 병장1 그리고 약간 탄약 반장님이… 그분도 약간 뭔가 열정, 열정 간부라. 일을 뭔가 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맞춰서 따라가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 병장2 저희 부대가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병이 휴가 나갔을 때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다가 저희 부대에 야근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중략) 근데 (지시 계통이) 상급부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잖아요. 저희 정작과장님으로 계셨던 그때 일 제일 많이 시키던 분이 저희한테 와서 혹시나 너희 부대 야근 많이 하냐고... 자기가 새벽에도 깨워서 시켜놓고….(하하) 그래서 저도 아니라고….

> 병장3 유격 때 우리 애들 언제든 어떤 상황에 가든,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다는 게 (대대장님이 유격 교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전쟁 나고 헬기 뜨면 우리(병사들)는 몸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병사들) 잘 버틸 수 있게 확실하게 굴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그때 그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한편, 당시 전군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었던 병영문화혁신운동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언급하였다. 병장3은 병영문화혁신운동에 대해 B부대의 대대장이 강조했던 간부-병사 간 소통 노력을 언급하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B부대 소속인 병장2도 부모님을 부대에 초대하는 부대개방행사를 했다고 말하며 이 때 세

족식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병영문화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외부 강사가 부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치고 함께 밴드 동아리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B부대의 대대장은 인터뷰에서, 바쁜 부대였기에 지휘를 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행정소요와 같은 것은 과감히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부와 병사 모두 리더로 만들자는 지휘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간부-병사, 병사-병사 간 상호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부와 병사를 1:1 멘토링하는 제도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외식하기,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B부대의 중대장이었던 간부3은 중대의 병영생활 규칙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였고 고민을 거듭하고 수많은 토의를 거쳐 세부사항들을 발전시켜나갔다.

> 병장3 병사는 아니지만 간부에 대한 소원수리를 했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간부들 다 모아놓고 그냥 아예 다 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사가 느끼는 간부들이 바꿔야 될 점. 이게 간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막 써요 누구 간부님 이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고 서로 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대대장님이 그거를 싹 리스트업 해서 그거 나온 사람은 그걸 직접 읽고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 직접 대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중략) 아무튼 그렇게 하고 서로 가까워지더라고요. 엄청 좋았어요.
>
> 연구자 마음의 편지예요? 소원 수리가?
>
> 병장3 네. 자주 했죠.

> 연구자 중대장님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나봐요?
>
> 병장3 (병영생활규정 관련해서) 엄청 논의를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한 번도 병력들한테 짜증 낸 적 없으시고.

그런데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효과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일부 병사들이 이러한 제도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병장3은 조직에서 자잘한 관습들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임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병사들에 대해 ‘자기들이 편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하며,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나 자세에 대한 교육과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병장3 안타까워요. 계급사회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계급이) 올라가는 거. (중략) 구타나 이런 게 아닌 짜잘한 부조리들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인사가 왜 이렇게 많냐, 볼 때마다 선임들한테 ‘고생하십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편히 쉬셨습니까,’ ‘편히 쉬십시오.’ 이거를 수도 없이 해야 한 대요. 이런 상호 간의 예의에 대한 그런 거 가지고 부조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주된 임무가 아닌데. 병사들이 자기를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훈련할 때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훈련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의 정신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중략)
> 제가 (뉴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데 예전에 ‘기울어진 연병장’인가 병사들이 간담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병사들이 올라오고 스타(장군) 분들이 병사들 간담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병사들의 복지, 병사들의 처우 개선 등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청객 중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던 게 엄청 멋있었던 게, (중략) ‘우리는 군인인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왜 내가, 내가 편해야 되고 왜 병사들은 편해야 되고 병사들의 복지만 얘기를 하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임무를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병사들이 아무도 없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어.무.(강조) 멋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진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 사람이 있는 부대는 얼마나 이렇게 (기강이) 딱 잡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교육적 영향

부대에서 정신전력교육을 받았는지 혹은 정신전력교육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명 중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교육 받았다’고 응답한 교육은 주로 주간정신전력교육(당시 주간정신교육)과 지휘관 정신교육이었다. 주간정신전력교육은 매주 수요일 지휘관(중대장) 주관 하에 0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교육자료를 읽고 국방TV의 방송을 시청한 후 지휘관이 강평 및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휘관 정신교육은 대대장 혹은 중대장이 필요시 혹은 수시로 군 기강 확립 목적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장병들의 애로사항 접수, 각종 훈련 전 강조사항 전파, 안전사고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된다.

병장1이 복무했던 A사단은 당시 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간부1이 직접 대대와 소초를 순회하며 지휘관 정신전력교육을 했고, 월 단위 사단장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사단 전 장병이 시청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내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군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특히 전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으며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검정고시나 각종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며 병사들이 군 생활을 버리는 시간이 아닌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병장2,3은 B부대의 대대장(간부2)이 전 병력을 대상으로 지휘관 정신교육을 자주 시행했고, 주간정신전력교육 시 중대장(간부3)이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병장5는 지휘관 정신교육이나 외부강사 초빙교육 등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 병장3 00 대대장님인데 평소에는 엄청 엄격하세요. 병사들의 군기나 이런 군인 정신 이런 것도 엄청 엄격하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부대에 병사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쪽에 다 몰아가지고 주기적 정신 교육도 계속하시고 그때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군인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 멋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이다'가. 그 꾸밈도 없잖아요. 그냥 군인은 군인. 그리고 그 (글자) 안에 군인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 병장3 정신교육을 하고 감상문을 쓰고. 그게 중대장님이 주마다 실시했었던 정신교육이고 대대장님은 아예 그냥 대대장님이 직접 병사들 정신 교육시켰죠. 중대장님은 (중략) 교육 시간에 그냥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힘듦을 겪어 왔고 나의 집안 환경 이런 거 (중략) 그러면서 병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이와 같은 형식교육 외에도 병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교육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간부를 매일 가까이서 지켜보고 함께 생활했던

병사들에게 지휘관의 지휘 스타일, 평상시 간부의 말 한마디, 태도, 업무 자세 등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실제로 병장3은 대대장인 간부2에 대해 특히 많이 언급했는데, '정'이 많고, '병사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와, '군인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병장3 그리고 정이 엄청 많으셨어요. 병사들한테 항상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은 군인다울 때가 가장 멋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일했던 인사과가 여기 있으면 대대장님실이 여기였거든요. (바로 건너편) 지나다니면서 제가 일을 할 때 이러고 (구부정하게) 일을 하는데 군인은 항상 올곧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그 땐 좀 짜증나기는 했는데, 이 자세가 편한데... 근데 그런 영향도 받고.

㉣ 적응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군 생활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꼈다는 진술을 공통적으로 했다. 이들이 전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군 생활이 '할 만 했고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참고로 당시 현역병 군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18개월인 지금보다 3개월 더 길었다.

병장1은 군 생활이 본인과 잘 맞았고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장2는 교육계원 임무가 너무 많아서 바쁜 부대 업무에 집중하다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며 일과 외 활동으로 진중문고 독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병장3은 부대에서 좋은 간부들과 함께 생활한 덕분에 군 생활 간 '즐거운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다. 병장4는 '재미 삼아' 수색대대의 극한 훈련에 자원하고 각종 부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병장5도 군 생활이 힘들기보다는 재미있었고,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행동을 관찰하고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 병장1 저는 근데 군 생활이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저는 군 생활이 저한테 좀 맞아서 휴가도 잘 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약간 일부러 사지방도 안 갔고 전화도 안 했고 사회랑 소통이 되면 나가고 싶을까 봐 그냥 군 생활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병장3 막 좋은 추억도 많고 이러면서 약간 향수병이라고 해야 되나, 군대에 대한?

병장5 (군 생활이) 할 만하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활동 전국적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어차피 생활이 힘든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4) 고참병 시기

㉠ 자율성이 증가됨

연구 참여자들은 진급을 함에 따라 점차 자율성이 증대되었음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장3 계급사회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올라가는 거. (중략) 근데 언젠가 올라가면 자기는 (후임 때 고참들이 시켜서 했던 일들을) 안 해도 되잖아요.

㉡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감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진급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고참병이기에 후임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분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분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 분대장이라는 어떤 책임감 그런 게 더 많이 생겼나요. 그전보다?

병장3 엄청 생겼죠. 내 분대원은 내가 챙겨야 된다. 작업 같은 거를 가도 내 분대원은 쉬운 걸로 해야 되고 다치면 안 되고. 내 분대원은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 위계질서 내에서 갈등과 조화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은 계급이 낮을 때 갖은 고생을 했는데, 고참이

되고 나서 새로 들어온 후임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레 보상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장3 군 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선후임 간의 관계? 선진 병영에 대한 그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 보상 심리는 어느 누구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표출하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다르잖아요. 보상을 대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넌지시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면 주고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한, 병장2는 최고 선임으로서 부대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며 '갖춰져 있었기에' 후임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다고 했던 반면, 병장3은 분대장으로서 말을 안 듣는 후임병을 지도하는 데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급과 직책, 그리고 간부들로부터 받았던 인정 등으로 인해 대체로 후임병들이 따라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병장3 후임 하나가 들어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무런 작업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근무도 못 한대요 골치가 아픈 거죠. 근무를 시켰더니 주저앉고 울어요. 일을 시켰더니. (중략) 그래서 푹신한 의자도 사줬고 외진도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아프대요. 근데 체력 단련 시간에는 거기서 춤을 춰요. 비보이로.

그러니까 이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타일러도 보고 그 다음에 욕도 해봤고. 왜냐하면 얘 하나 때문에 피해 보는 애 한둘이 아니니까. 얘가 야간근무인데 갑자기 못 한다고 해버리면 다른 애가 갑자기 근무 들어가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얘를 타일러 보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놨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좀 기억에 남죠. 제 분대원이기도 했고. 잘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 (중략) 답이 없죠. 찌르잖아요. 소원수리에.

병장3 왜냐하면 저보다 바로 한 달 후임인 애들은 말을 안 듣고 했지만 제가 분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인사계원이고 간부들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계급이 낮은 시절 부조리를 경험했고,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고참이 된 후에는 본인들 스스로 부정적인 분위기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고 실제로 병영 내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병장1 오히려 저 이제 제가 좀 이제 고참이 됐을 때 다른 제 동기들은 좀 순해서. 제 후임들은 그런 걸 못 느꼈겠지만, 느꼈으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편지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병장2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그랬는데, 원래 가면 부조리가 많잖아요. 저는 제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하고, 위에 가면 이상한 건 다 없애는 식이었거든요. (중략) 이등병 때는 px도 당연히 못 가고 처음에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활동복 위아래로 막 섞어서 입잖아요 고참들은. 근데 후임들은 무조건 이건 이거, 바지 무조건 이렇게 넣어서 입어야 하는 좀 이상한 거. 그런 거는 다 없애고 그렇게 많이 했고….

병장2 그래서 뭐 진짜 근무 시간에 졸거나 이런 거는 저도 얘기를 하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부조리 관련)에 대해서는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병장3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사지방. 전화. 막내가 빨래 한다. 이런 각종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엔 다 없어지긴 했어요. 병장2랑 저랑 가장 얘기했던 게 그거를 없애는 걸 (우리가 하자.) 다 없애진 못하더라도 일부는 없앴으면 해서 많이 없앤 것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힘이 됐던 게 중대장님이었거든요.

나.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전역 연기 결정의 이유와 동기를 중심으로 영향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사례 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주제 3개, 범주 7개, 코드 18개로 도출되었다.

병장 5명의 전역 연기 이유는 서로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역을 연기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었던 결정적인 영향 요인을 한 가지로 꼽는다면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기저하는 요인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성을 보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 후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의미 단위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묶어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2.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제	범주	코드	의미 단위 / 원자료 표현
위기상황 인식과 정서	생존의 위협과 정서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결연함의 공존	“죽으면 죽는 거죠”
		분노와 전의 고양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화가 났어요”
		북한에 대한 적개심 차이	“바뀌어야 될 놈들은 안 바뀌는 구나”
현실적 (실리적) 판단과 대처	현실적 상황 판단	전쟁 가능성에 대처	“전쟁나면 어차피 다 위험하니까”
		불확실성에 대응	“어차피 이래도 불확실하고”
	자기만족과 자기성장을 지향	군 생활 마무리에 대한 의지	“군 생활만큼은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특별한 경험을 추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
내재 동기의 자원	자율성	전역 연기의 자율적 선택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표출	“난 전역 연기 할 거라고”
	유능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뛰어가서 구해주는 거랑 같아요”
	관계성	간부에 대한 애착	“간부님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어요”
		가족과 같은 전우	“내 가족이었어요”
		위기상황 마무리에 대한 의지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부대에 대한 소속감	“내가 지금 속한 이곳이 더 중요했어요”
		신뢰에 기반	“신뢰가 있었으니까”
	규범의 내면화	국가공동체 의식으로 확장	“울타리가 무너지면 위험하잖아요”
		군인 신분이라는 정체성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

<표 6> 면담 분석결과(연구문제2: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위기상황 인식과 정서

5명의 예비역 병장의 면담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중 당시 위기상황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병장 1,2,3은 정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병장 4,5는 전쟁까지 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장3 당시에 유서를 썼을 때는 내가 진짜로 전쟁에 나가겠구나...

병장4 긴장감이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는 못 느꼈고요.

이러한 상황 인식의 차이가 발생했던 이유는 소속 부대의 특성과 개인의 임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긴장감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이한 상황 인식에서 시작하여 이후 많은 차이가 비롯되었는데, 우선 병장1,2,3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결연함의 공존 "죽으면 죽는 거죠."

먼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병장1,2,3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방 부대의 탄약계원이었던 병장1은 전시 상황에서 탄약고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병장2,3은 B부대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전쟁 발발 시 바로 폭격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병장4,5는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고 따라서 생명의 위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

병장1 전시 상황이면 적들은 탄약고를 제일 먼저 노린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친구(후임)한테. (그래서 후임이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제가) 어쨌든 탄이 없으면 전투력이 다 떨어지는 거니까 탄약고를 제일 먼저 노린다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떨어지면 난 담배 한 대 피고 죽으랜다 약간 그랬던 슬픈 얘기가…

(중략) 제일 좀 무서웠던 거는 탄약이 교탄이 있고 전시용 탄이 따로 있잖아요. 전

시용 탄은 절대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었어요. 그 행정반에다가 빼놨었어요. 전시용 탄들을 언제든 바로 상황 터지면 뜯을 수 있게 그랬던 기억이…

병장3 우리 군의 가장 핵심 요충지인 거죠. 그냥 북한에서 폭격을 하면 가장 먼저 포격을 받는. 활주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니까 활주로를 부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폭격을 당하는 거고, 저희 임무는 헬기를 띄우는 거고, 헬기를 띄우면 띄울 때까지 살아남으면 본부가 있는 00으로 가는 건데, 될지는 모르겠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마주하는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순응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병장1은 탄약고 앞을 지키면서 언제라도 적의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만약 죽는다면 '팔자'라고 생각했다. 병장2와 3은 모두 '죽으면 죽지'라는 생각을 했다.

병장1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탄약고 앞에서… 담배 피지 않았지만 넣어놓고서 했던 게 팔자겠거니 생각했어요. 죽으면 상황이 터지면. 팔자겠거니 생각을 했고.

병장2 죽으면 죽지 약간 이런 생각이….

병장3 죽으면 죽는 거죠.

특히, 병장2와 3이 소속된 B부대에서는 대대장의 지시로 출정서를 작성했는데, 이들은 '유서가 될지도 모르는' 출정서를 작성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장3은 출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병장3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장님이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시면서 유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서를 쓰는데 막상 유서를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내가 진짜 죽나 이 생각도 들고. 무슨 내용을 써야 하지 부모님께 써야 되긴 하는데, 조그마한 메모지였거든요. 거기에 뭔가를 적으려고 하니까 적을 말이 간추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중략) '여기서 이제 같이 싸워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쓰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데도 약간 좀 울컥한데... 이렇게

적고 이제 여기 전투복에 있잖아요. 계속 지니고 있으라 해서 지니고 있었고.

분노와 전의 고양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화가 났어요."

병장3의 경우 5명의 연구 참여자 중 가장 강한 분노 정서가 나타났는데, 이 분노의 원천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과 '전우들(간부, 후임들)이 힘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강렬한 분노와 함께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전방에 가서 총 한 발이라고 쏘고 죽고 싶었다.'라며 전의가 고양되었던 당시 심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연구자 처음에 되게 화가 많이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북한에 대한 화인지, 아니면 후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게?
병장3 둘 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게 너무 짜증...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분했던 거죠.

병장3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걔네들은 북쪽에 총 한 발이라도 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후방에 있고, (중략) 전쟁 나면 바로 폭격 당하는 데라고 해가지고 바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이 너무 부러웠고 기회만 된다면 가서 총 한 발이라도 쏘고 죽고 싶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수준 "바뀌어야 될 놈들은 안 바뀌는구나."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역을 연기할 당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병장 1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자신이 전역을 하지 못한다는 분노가 있었고, 목함지뢰도발로 부상당한 전우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북한은 '안 바뀌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연구자 그때 북한에 대한 분노 감정은 혹시 없었나요? 전역 연기 하면서?
병장1 있었죠. 쟤네들 때문에 나 전역 못한다. 그런데 막…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쟤들 때문에 전역 연기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사분들 얘기 들으니까 하… 바뀔 놈들은 안 바뀌는구나, 바뀌어야 될 놈들은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

한편, 병장2는 직접적으로 '우리 집'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

에 대한 분노가 크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당장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분노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자 북한에 대한 분노는 어땠나요?
병장2 그런 거는 막 엄청 크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일단은 저는 후방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 쐈어?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전방에 있었던 분들은 또 GP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은 적 GP를 내가 부숴버리고 싶다 이렇게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병장2 지금 일단 상황이 거기 있으면 사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분노심 이런 거를 잘 못 느꼈던 거 같아요.

2) 현실적(실리적) 판단과 대처

㉠ 현실적 상황판단

전쟁에 대처하는 자세 "전쟁나면 어차피 다 위험하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던 이들은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정서를 경험했고 부대원과의 전우애로 인해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되지만, 단순히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전역 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지극히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렸다. 병장1은 '국가를 지킨다는 거창한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임했다.

연구자 혹시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생각을 하셨었나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병장1 솔직히 그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국민 이런 생각은 별로…?
병장1 국민을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행동이 국민을 지키는 행동이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지라는 거창한 생각으로 했던 행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으면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격에는. (그런 거창한 생각으로 하는 건) 나대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으쌰으쌰해서 같이 가자.

병장1은 ‘주변 사람들’과 대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우선이었고 표면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범위를 국가 전체로 인식했다. 즉, 전쟁이 난다면 제대하고 부대 밖이 위험하지 않은지 생각했을 때, 군대를 나가도 나라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동원령이 선포되어 예비군이 소집되면 모두가 다 같이 싸울 것이라는 후속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계산 끝에, 병장1은 전역을 하고 민간에 나갔다가 예비군으로 소집될 것인가, 혹은 현 소속 부대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비교해서 생각했고 주어진 두 가지 환경적 선택지 중 후자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는 ‘어차피 전쟁나면 예비군으로 소집이 될 텐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특기가 아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전투를 치르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위기상황 인식과 현실적인 판단이 결합되어 자신이 선호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병장1 저는 오히려 네 전역을 하면 더 걱정… 제가 그 상황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시, 준전시 상황에서 전역을 하면 어쨌든 전시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시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예비군으로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전역 연기를 하든 안 하든 상황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는 예비군 부대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 병장1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주특기 내에서 내가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대대에서는. 제가 예비군 부대로 속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거(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그냥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 연기를 한다고 했었고. 그게 좀 뭔가 애국심으로 포장이 됐지만...

불확실성에 대응 “어차피 이래도 불확실하고”

최초 8월 4일에 상황이 발생한 이후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었고 특히 8월 20일 포격도발 이후 남북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종료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투를 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다. 당시 전역을 앞둔

병장이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어차피 다시 군대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자발적으로 군 생활을 좀 더 연장하여 마무리하고 전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장5 전역을 하는 와중에 이제 진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완전 그러면 예비군들 다 소집하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막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가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정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어쨌든 내가 같이 마무리를 잘하고 조금 늦어지지만 집에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게 있었다는 거네요?
병장4 집에 갈 수 있겠다 이것도 맞긴 한데 내가 만약에 그런 실제 상황이 터진다고 하면, 내가 이걸 신청을 안 했더라도 나 집에 갈 수 있는 건가? 어차피 이래도 불확실하고...

㉡ 자기만족과 자기성장을 지향

군 생활 마무리에 대한 의지 “군 생활만큼은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앞서 Ⅲ. 연구방법의 2. 언론보도 내용분석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우애’와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전역 연기 이유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자는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마무리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부탁했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해석하면, 입대할 때부터 군 생활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했던 이들에게 있어 개인의 군 생활은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대상이었다.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는 21개월간의 군 복무이기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생활해왔는데,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개인의 심리적 만족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병장1은 상황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군 생활만큼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버리면 ‘찝찝’할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병장1 군 생활만큼은 되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거를 안 끝내고 나가버리게 되면 마무리가 너무 찝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장4는 지금까지 '내'가 군 생활을 잘 해왔고, 동료와 함께하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후임들에게 받은 인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자기만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한두 달 전역이 연기된다면 그 당시야 길지만 넓게 보면 별로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역 연기를 하고 상황이 잘 마무리된 후에는 본인이 심리적 만족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후임들과 평소 관계가 돈독했고, 그들이 자신을 선임으로서 인정하고 신뢰하며 잘 따랐기 때문에 후임들로부터 받은 인정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병장4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게 좀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전역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병장4 다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진돗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나 지금까지 군 생활을 잘했는데 후임들이랑 같이 가야지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중략) 내가 심적으로 이거를 함으로써 나의 만족도를 얻는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보상이 됐든 그래도 뒤따라오는 자기 리소스가 좀 있어야 그래야 나서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청한 이유가 동료들 간에 끝까지 가야지 이런 것도 끝까지 가야지도 맞는 말이지만 얘들한테 받은 이런 인정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제 심리적인 저의 만족도가 있었던 거고.

특별한 경험을 추구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

적으로부터 폭격을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했던 병장1, 2, 3과 달리, 병장4, 5는 전쟁의 긴장감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기에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병장4와 병장5가 전역을 연기했던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군 생활을 통해 형성된 관계성과 유능감, 그리고 현실적 판단 등이 기저에 바탕이 된 상태에서, 전역 연기를 자신의 인생에

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특히, 병장5는 입대 전부터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고, 군 생활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는 군 생활이 '재미있었다'고 회상했으며 부대 내에 부조리가 전혀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좋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부대에서 최고참이 되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상황이 발생했는데, 부대에서 전역 연기 신청자 현황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다시 고민을 해서 전역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장5는 마음을 바꾸어 전역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병장5 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뭐 일반적으로 깊게 생각 안 하고 전역 할 건데? 그냥 전역이 다가왔으니까 했는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본 거죠. 이 상황에서... 호기심도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

병장5는 개인적 차원에서 '희귀'하고 '특별'한 상황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군대에서 '전역 연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자체를 경험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간부들과 선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았고 후임들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혼자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며 결국 부대에 남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병장5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가는 게 맞는 건가? 그것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간부들이) 다 잘해주시고 선임들한테도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는 혼자잖아요. 후임들도 정말 좋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 병장5 솔직하게 그냥...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중략)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희귀함? (중략) 여기에서 내가 연기를 하고 계속 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자체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호기심보다는 그냥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최초의 전역 연기자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역 연기 신청자가 5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상황 종료 후 유명 기업에서 이들을 특별채용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참여자들이 전역 연기를 신청한 시점이 특별채용에 대한 보도가 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순서상 영향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자는 혹시라도 상황 종료 이후에 특정 보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전역 연기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 연구자 두 명이 처음에 전역 연기한다고 했을 때 모 그룹에서 채용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전역 연기하신 건가요?
> 병장4 아니죠. 그거는 아니요. 채용 이야기는 그 이후에 나중에 들었던 것 같고 지금 전역연기를 한다? 저걸 왜 하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 병장5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중략) 그러니까 화제 자체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연기하다가 상황 좋아지면 전역하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훈련하는 도중에 전역인데 훈련 마치고 전역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그거랑 비슷한 건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화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중략) 완전 얼떨떨했죠. 엄청 막 정신 없었죠 한동안.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역하는 예정이랑 똑같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군에서) 해주는 거는 많으니까.

3) 내재 동기의 자원

㉠ 자율성

전역 연기의 자율적 선택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2015년 8월 안보위기상황에서 병장들이 전역 연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연구자는 혹시 부대 내에서 은연중에 압박을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혹은 전역을 연기하라는 직접적인 권유를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예비역 병장 5명 모두 주변의 압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순전히 자신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병장1 **(같이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동기)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전역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그게(전역 연기 희망자 현황파악이) 왔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약간 무언의 압박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병장1 무언의 압박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전역하면 뭐 안 볼 사람들인데 굳이 압박을 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시기(말년 병장)였어서. 압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표출 "난 전역 연기 할 거라고."

병장2는 '후방에서 전역 연기를 왜 하느냐'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전역 연기를 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병장3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며, 전역 연기를 반대하는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결국 전역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장2 무조건 너 전역 연기해 이건 아니니까. (중략) 주변 사람들이 후방에서 왜 전역 연기하냐고... 뭔 소리냐고 난 (전역 연기)할거라고...

병장3 아빠는 여기 있으니까 아빠도 위험하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잘못되면 가장은 넌데, 너마저 잘못되면 남동생 어리고 여동생도 어리고 엄마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도.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닥쳐서 생각해야 될 거고 나는 해야 된다, 해야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 유능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 '분대장'으로서 혹은 '최고참'으로서 부대와 임무에 대해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있었다. 오랜 경험으로 지식과 능력이 갖춰져 있었기에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후임들에게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병장1 그 탄약 거기 반에서는 제가 제일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반장님(새로 바뀐 간부)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때 상황에서는.

병장2 제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사실 긴장 안 하게 하고 (중략) 애들(후임들) 이렇게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지휘통제실도 이제 전시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뭔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얘네(후임들)를 긴장 안 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병장4 내가 좀 더 얘네들 많이 소통도 했고 애들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위기상황에서) 같이 가는 거지.
연구자 후임들이 많이 따랐나 봐요?
병장4 네. 고맙게도.
연구자 (후임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장4 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연구자 갖춰져 있으니까? 능력이?
병장4 네.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이드를 제시해봤자 이거는 그냥 잔소리나 아니면 한 번 듣고 흘릴 뿐이지. 진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제 말이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뛰어가서 구해주는 거랑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전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병장1은 탄약반에서 가장 고참인 본인이 전역하고 없는데 전쟁이 나면 후임 부사수가 힘들 것 같았고 자신이 남아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장2는 분대원들이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전역 연기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전역을 연기한 행동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병장1 부사수 친구가 너무 좀 힘들 것 같긴 했어요.

병장2 근데 저는 약간 평소에도 지하철에서 사람이 막 떨어지면... 다른 사람 떨어졌을 때 의인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뉴스로) 많이 접하기도 했고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중략) 약간 제가 전역 연기한 거랑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있었다는 거죠?

병장2 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 사고 났을 때 뛰어가서 이걸 구해주고 이런 사람은 사실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 관계성

앞서 연구문제 1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전역을 연기했던 5명의 병장들은 군 생활 중 만난 간부, 동기, 후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끈끈한 전우애를 경험했다. 그들이 전역을 연기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관계성이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시 돌아가더라도 전역 연기라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병장1, 병장4, 병장5는 만약 부대에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전역을 연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인식했던 '전우'라는 존재는 구체적으로 간부와 동료 병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전역 연기에 대해서?

병장1 아니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만약에 다시 시작해서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야 군 생활이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너무 재밌게 잘 지냈기 때문에 했던 결정이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해야 될까? 어쨌든 애국심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생각인 거지 내가 이미 불안정한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병장4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그런 (괴롭힘 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면 전 안 했겠죠. 이렇게 그 앞선 (적극적인) 활동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잘 지내면서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있고, 나 스스로의 이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오면 휴가나 이런 보상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됐던 거지, 어느 정도 하다가 열정이 식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저의 복이네요.

간부에 대한 애착 “간부님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어요.”

특히 병장3은 B부대원에 대해 가족 이상의 정이 들었는데 위기 상황이 터진 후 전역 연기를 혼자 고민하는 상황에서 병사들보다도 근무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간부들의 모습이 더 많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 병장3 근데, 병사들보다 간부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은 간부들이니까. 병사들은 이제 저랑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동기들하고 분대원들 이렇게가 떠올랐고 나머지 병사들 떠오르기는 했는데 그냥 저를 제가 이 가족 분들이라는 걸 선택하게 한 거는 그 인원들이, 그분(간부)들이 큰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은 전우 “내 가족이었어요.”

병장3은 자신의 혈연가족도 소중하지만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던 대대의 식구들이 당시 자신의 가족이었다고 말했다.

> 병장3 그때 당시 가족은 대대였어요. 대대. 대대에 있는 모든 인원들... 왜냐면 ‘소집’(작은 집)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속한, 내가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었거든요. 다른 군인도 있으면 근처에는 00사단도 있을 거고 더 크게 보면 00단도 있을 거고 2작사도 있는데, 저는 그냥 B 대대 이 가족들이거였거든요.

부대에 대한 소속감 “내가 지금 속한 이곳이 더 중요했어요.”

참여자들은 끈끈한 전우애가 형성되었던 부대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병장1은 현재 속한 부대에서 숙달된 임무를 지속하고 싶었고, 새로운 예비군 부대로 소속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병장3은 전역 연기 신청을 놓고 고민하면서 ‘진짜 가족’과 현재 속한 부대를 놓고 저울질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속한 소속처’가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 병장1 제가 예비군 부대로 속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거(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그냥 좀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중략) 예비군 부대에 소속이 돼서 전쟁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병장3 아빠랑 싸웠잖아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막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빠는 강원도에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적이) 내려오면 아버지는 바로 위험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잘못되면 네 가족들은 누가 지켜? 그러면 진짜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울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진짜 가족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데서 내가 속한 현재 내 임무를 지키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지금 '속한 나'가 이긴 거... 내 소속처가 이긴 거죠.

위기상황 마무리에 대한 의지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앞서 살펴본 '마무리'의 의미는 '개인의 군 생활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하였고 여기서 '마무리'에 대한 의미는 현 위기상황에 대한 마무리이자 상황종료를 의미한다. 당시 이들이 지각한 위기 상황은 '주변 전우들이 역경에 처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조직이 처한 위기로서 거시적인 측면의 상황 인식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옆의 전우들이 고생하는 상황을 다시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들 또한 기본적으로 상황 발생 후 가장 먼저 인식한 원초적 위기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겪는 역경이었다.

병장1 그냥 뭔가 저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전역 연기를 해야겠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준전시 상황이 계속 유지됐는데,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겠다.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장3 그냥 저는 제 후임들이 막 힘들다는 게 너무 짜증났어요. 간부들도 똑같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예민하겠어요. 얼른 들어가고 싶었고 부대에.

신뢰에 기반 "신뢰가 있었으니까"

병장1은 간부와 병사들 모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역을 연기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우리의 적은 북한이지만 동시에 부대원 상호간 불신이 가장 큰 내부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병장1 저야 이미 다 두루두루 친해지고 이미 신뢰가 다 쌓였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거리낌 없이 저는 전역 연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시 상황이 터진다고 하면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불신이랑 그런 게 더 큰 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아요.

㉣ 규범의 내면화

국가공동체 의식으로 확장 "울타리가 무너지면 위험하잖아요"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참여자들이 상황이 발생한 직후 첫 번째로 영향을 받았던 요인은 '내 옆의 전우들'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전우들은 구체적으로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후임 혹은 분대원으로, 즉 위기상황 발생 이후 그들이 지각한 최초의 공동체 범위는 분대 수준의 소집단이었다. 병장1은 부사수 후임을 가장 먼저 걱정했고, 병장2는 분대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에 남아서 중심을 잡아줘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병장3도 분대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지각했던 공동체의 범위가 점차 확장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황 발생 초기에는 24시간 완전무장 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며 분대원들, 후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당장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폭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여기서 그들이 지각한 공동체는 중대, 대대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했기에 '모두가 위험'하며, '다같이' 싸워야 한다. 병장2와 병장3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긴장감 속에서 부대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을 하게 되었다. 병장2는 출정서에 "제가 나가도 부모님이 쉴 곳이 없고 제가 커서 자식을 갖게 되었을 때 제 자식이 살 땅이 없고 배울 학교가 없고 지킬 나라가 없다면 무엇이던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병장3은 "큰 울타리인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군대도 무너지고 가족이 사는 집도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즉, 그들은 국가 공동체의 위협이 곧 국가의 구성원인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실존적 위협과 같은 의미로 인식했던 것이다.

연구자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를 생각했을 때 진짜 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갈등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까 유서 쓰면서 그런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병장3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그거잖아요. (부대원들은) 또 다른 가족들이고 (두 손으로 울타리 두 개를 표시하며) 어차피 제가 이 가족들(부대원)을 못 지키면 이 가족(혈연)들이 위험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 (혈연가족이 있는) 집이고 조그만 울타리잖아요? 소 울타리잖아요. 근데 가족보다는 군대가 더 큰 울타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 이 (군대) 울타리 안에 더 큰 울타리는 대한민국이고 이 큰 집(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여기(군대)도 무너지고 여기(군대)가 무너지면 여기(집)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살아남았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싫거든요.

연구자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병장3 (전역 연기 신청하기 전) 이틀 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군인 신분이라는 정체성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

이러한 맥락에서 병장 2와 병장 3은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정체성을 중시했고, 군인이라면 국가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역을 연기했다.

병장2: 그때도 생각한 게 일단 전역하기 전까지는 아직 군인 신분이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병장3: 그러면 나는 군대를 왜 왔고. 내가 강제로 끌려왔지만 지금 임무는 아까 말했던 국가 수호고 그건 당연한 거고.

병장3: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징집으로 해서 갔지만 어쨌든 군인 신분이고, 어른들이 말하면 국가의 아들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아들이고 국가의 아들이기도 해서 지금 소속은 현 소속은 군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싸워야 될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출정서에 썼죠.

특히 병장3에게 부대 공동체와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 정체성은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전역 연기 결정을 내렸다. 당시 그에게 부대원들은 '끝까지 하고 싶었던'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었고 혈연 가족

보다 더 우선순위였다고 말했다.

> 병장3 국민을 지킨다는 건 내 가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엄청 멋졌어요. 전역 연기(신청 희망자 조사)를 그때 본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한 이틀 했죠. 이틀째 밤에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그냥 바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와라. 너만 나라 지키냐. 어차피 다른 사람도 있다.' (중략) 만약에 아빠가 잘못되면 가장은 넌데 너마저 잘못되면 동생들 어리고 엄마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도.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닥쳐서 생각해야 될 거고 나는 해야 된다, 해야겠다 라고 하고 끊었어요.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그 다음 날 **(병장2)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한 거거든요. (중략) 그때 몇 년 만에 아빠랑 싸운 것 같아요.

> 병장3: 같은 가족이고, 여기는 피를 나눈 가족이고 여기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과 그냥 끝까지 하고 싶었어요. 끝나던 안 끝나던.
> 연구자: 가족 이상의 정이었네요.
> 병장3: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진짜 저한테는 1순위였습니다. 만약에 1순위가 아니었으면 전역 연기를 안 했겠죠. 어떻게든 빨리 나가서 아빠랑 통화를 듣고 그냥 가족들이랑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고 안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더 우선순위였죠.

종합하면, 전역 연기 결정의 영향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군 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율성과 관계성, 유능감이 밑바탕이 되고 상호 신뢰감이 형성된 가운데 현실적 판단이나, 혹은 국가 공동체 의식과 군인의 정체성이 결부되어 전역 연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경험에 대한 가치 실현이나 인정과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개인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과 군인 신분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국가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안보위기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장들에 대한 언론보도 및 예비역 병장 5명과 현역 및 예비역 간부 4명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전역 연기 병장의 군 생활 경험과 전역을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전역 연기 결정을 했던 병장들의 군 생활 경험은 입대 전(군대에 대한 선입관과 정서, 군 생활을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 입대 초기(개인 내부 요인, 개인 간 상호작용), 적응기(부대원 간 긍정적 관계 형성, 집단 내 역할에 대한 유능감 형성, 부대 환경 및 분위기의 영향, 교육적 영향, 적응의 결과), 고참기(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임감, 계급으로 주어지는 자율성, 위계질서 내에서 갈등과 조화)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전역을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위기상황 인식과 정서, 내재동기의 자원(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규범의 내면화), 현실적 판단과 대처(현실적 상황판단, 자기만족과 자기성장을 지향)의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역을 연기한 병장들의 군 생활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대부분 군 입대 전부터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생활을 통해 자신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비록 입대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군 생활에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고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서 군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생활하였다. 입대 초기에는 사회에서 형성된 관계의 단절, 선임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하는 자세로 인해 부대원들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군 생활을 이어나갔다.

군 생활 적응기에는 소속 부대의 간부와 병사들 간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에 대해 숙달되며 유능감 및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는 등 연구 참여자들은 군 생활 간 높은 군 복무 적응도를 나타냈다. 당시 군 내부적으로 활발히 전개된 병영문화혁신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던 소속부대

환경 및 분위기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부대 지휘관의 교육과 리더십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적응의 결과로 이들은 군 생활이 할 만하고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당시 부대에서 자신들이 고참병이 된 후로는 자율성이 더욱 신장된 동시에 분대장 혹은 최고선임이라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졌고 후임들을 통솔하며 갈등과 함께 조화로운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둘째, 전역을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역 연기자들 간 위기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역 연기를 결정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의 긴장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했던 연구 참여자는 군 생활을 하며 주변 전우들로부터 받았던 인정을 끝까지 유지하여 상황이 잘 해결된 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자기만족의 기대감이 있었고, 인생에서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서의 자기성장에 대한 지향성이 나타났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죽음의 공포를 느꼈음에도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었다. 지휘관으로부터 평소 군인 상(像)에 대한 교육적 영향을 받았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신분이 군인이기에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군인정신이 있었으며, 평소 간부를 포함한 부대원 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부대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확장되었다.

또한, 전역 연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내재적 동기의 세 가지 자원(Deci & Ryan, 2008)이 발견되었는데, 병사 중 최고참 계급이면서 전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병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확보된 상태였고, 전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을 것인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이었다. 또한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본인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유능감(자기효능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특히 부대원 간의 관계성이 전역 연기 결정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예비역 병장들은 평소 군 생활을 하면서 부대원과 전우애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2.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첫째, 전역 연기를 결정한 병장들은 입대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 생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군 생활 경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군 입대 전에는 아버지와 주변 군필자들의 경험담으로부터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입대 초기 성실함과 적극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인정과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 이는 철학적으로 쾌락주의적 행복만을 안녕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기실현적 관점(김금미, 2010)에서 군 생활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초기에 군대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대감이 입대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될 수도 있었겠으나, 그들은 부대에서 격려와 인정을 받고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면서 군대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군 생활 초기에 병사들에게 성취경험과 인정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안녕감은 자기성장이나 자기실현으로 이루어지고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는 삶, 완전히 기능하는 삶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기보다는 자기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Ryan et al., 2001). 실제로 당시 전역 연기자들 중 2명의 연구 참여자들(병장4,5)도 입대 전부터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군 생활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였고, 이것이 군 생활 내내 계속 이어져왔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역경의 상황이 잘 마무리된 후 자기만족과 자기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전역 연기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전역 연기 결정을 했던 장병들은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자발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역경에 자원했으며 대면한 역경의 의미나 그 경험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홍서현, 2015).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시 상황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감정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들이 단순히 분위기에만 휩쓸려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적의 폭격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

지만, 동시에 전쟁이 나면 어차피 모두가 위험하고 다시 군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자신이 익숙하고 선호하는 환경인 '현 소속 부대'에 남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생존전략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이 전역 연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투의지라는 것이 전장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능적인 '자기 보존의 욕구의 발현'이라는 개념(이상복, 2015)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소속 부대를 더 선호했던 것은 평소 군 생활을 하면서 부대원들과 친밀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형성하여 소속감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강하게 느꼈던 관계 요인이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군 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대원 간의 친밀한 관계성뿐만 아니라, 전역 연기 결정에 있어 병장들은 압박감이 없이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받았고, 임무 숙달로 인한 유능감과 최고참, 분대장이라는 책임감이 병장들의 전역 연기 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3가지 기본심리욕구 즉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이 충족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학업상황이나 회사와 같은 조직이 아닌 군대와 같은 특수한 계급 사회 안에서도 자기결정성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 욕구로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만족 경험을 강조하고,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은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동기의 발생을 자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00). 기본 심리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획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필수 조건이며,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개인은 사회성 발달과 개인 내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하고 발달하려는 본래의 자연적인 성향을 촉진할 수 있다(Ryan & Deci, 2002).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경험과 전역 연기 결정의 영향 요인들 중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 중에서도 전우와의 관계성에 대한 세부요인(코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문제 1과 2에 대한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군 생활 경험 중 형성된 관계성이 전역 연기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병사들이 전우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투에 동참한다(이상복, 2015; Woodruff & Segal, 2006; McPherson, 1997)는 여러 전사(戰史) 사례 및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우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역경과 위기를 경험할 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구성원들의 역경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장기간 단체생활을 하고 구성원의 단결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자기결정성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관계성과 함께 자율성과 유능감이 함께 충족되어 소속 집단에 남으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역 연기를 결정할 당시 연구 참여자들은 부대에서 최고참 병사였기 때문에 전역 연기 시점에서 이들이 강한 결속력과 응집력을 통해 관계성을 형성했던 부대원은 구체적으로 간부와 후임 병사를 의미한다. Siebold(2007)에 따르면 간부와 형성된 관계성은 상급자와의 리더 유대감이며, 후임 병사 및 분대원과의 관계성은 하급자와의 리더 유대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1차 집단 응집력이 형성되었으며, 대대를 넘어 국가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었던 경우(병장2, 3)에는 2차 집단 응집력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iebold, 2007). 전역 연기 병장들 중 과거 선임 병사와의 관계에서 부조리를 목격 혹은 경험하거나 선 후임 간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 참여자도 일부 있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부조리를 덜 겪었다고 느끼고 있었고, 간부와의 관계, 후임 병사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친밀했기 때문에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부대원들 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은 과거 병영 부조리로 발생된 사고 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지며 군 내부에서도 병영문화혁신운동과 같이 병영 내 악폐습이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던 군 조직 분위기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 연기 병장과 더불어 이들을 지휘했던 현역 및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결과 병영문화혁신운동과 관련하여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했고,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연구 참여자도 부대의 조치사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넷째,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전역 연기 병사의 경우, 평소 지휘관과 간부에 대한 모델링 학습과 정신전력교육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병사들이 군대 규범을 내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 중 유기체적 통합이론

에 따라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서 단계별로 동기 수준이 발달할 수 있다(Ryan & Deci, 2000a, 2000b)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역 연기자들은 그들의 군 생활 경험 중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군대 조직의 규범과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습득하고 내면화하여 동일시 조절 혹은 통합된 조절로 내재적 동기에 가깝게 동기화되어 자기결정적으로 전역 연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단과 규범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가 커질수록 군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커진다는(Horowitz & Kimmerling, 1974)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전역 연기 병사가 군 생활 경험에서 전역 연기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기결정적이었다는 점은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핵심인 군대에서 군인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도 특성상 병사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군 복무가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의 군 생활 동기는 타율적이고 의무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송경재 등, 2010; 전동우, 2010).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병사의 자기결정성에 대한 논의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율성을 비롯한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매우 보편적이기 때문에 군대와 같은 특정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한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정태연, 2018). 군인의 전투 동기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동떨어져 기능하는 별개의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고유한 인간 동기가 발현되는 법칙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며, 군인의 심리를 자기결정성 동기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Pawiński, & Chami, 2019).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군에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군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입대했고, 적극적인 생활태도와 자세에 대해 부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러한 적극성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입대 예정자와 입대 초기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 생활의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입대 전 동기유발과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송경재 등, 2010; 노준 등 2016; 박현규, 2021)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인 이스라엘 군대는 다양한 입대 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성이 확인된 좋은 사례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인재개발부의 교육·청년처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마겐(Magen)은 교육 대상을 교사와 군인, 청소년, 남녀 고등학생, 입대 전 봉사 활동 청소년 등으로 크게 넷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교육의 주요 방법은 세미나와 야전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조우찬, 2019).

둘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하여 평시부터 병사를 포함한 군 조직 구성원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신체적 기능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듯이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유능성 욕구)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적 3대 영양소이다(김아영 외, 2022). 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킬수록 내재동기가 증진되고 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반면, 기본심리욕구를 좌절시키는 사회적 환경에 속하면 개인의 역량 발휘나 내재동기의 경험이 어렵고 심리적 건강과 기능이 약화된다((Ryan & Deci, 2000). 이런 점에서 군대에서도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러한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기본심리욕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그것이 충족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평소 군 생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내재동기의 자원인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확인된 바, 평소 군대의 교육훈련과 병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자율성과 관계성, 유능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인 자율성 욕구 측면에서 보면, 자율성은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율성 지지와 통제는 독립적인 차원에 존재한다(Jang, Kim, & Reeve, 2016)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규율과 통제가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모든 군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병사들의 자율권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나 동기를 저하시키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정해진 과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제약이나 조건 하에서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정태연, 2018). 즉, 자기결정성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와

일관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 제공(provision of structure)이라는 맥락(김아영 외, 2022)에서 군대에서의 자율성 지지라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성 측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요인 부대원 간의 관계성과 1차 집단 응집력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평시 소집단 수준에서의 전우애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역 연기자들 모두 간부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유대감이 강했다는 점에서 전우애를 형성하는데 간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리고 유능감 측면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이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내재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Deci & Ryan, 1980), 실제 본 연구에서 전역을 연기했던 병장들도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평소 군 생활 중 임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보다는 조그마한 성과에도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시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성원의 힘을 합쳐 공동체나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 지휘관이 주관하는 교육의 영향력을 확인했는데, 특히 내적 가치의 개념을 단순히 주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병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규범에 대한 내면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군 간부의 '모범적인 군인상'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군인정신의 내면화와 내적 가치의 개념을 교육하기 이전에, 간부들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고 병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진정성과 인성 함양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상황을 상정한 교육을 통해 병사들이 위기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전장에서 '나'를 지켜줄 '전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군인정신, 용기, 충성, 명예 등과 같은 용어는 모호하고 멀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당위적 가치교육보다는 바로 옆의 전우가 왜 소중한지 훈련이나 실전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Gal과 Manning(198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전장의 병사들은 복잡한 가치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

징병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고 생각하며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병사들에게 내적 가치를 교육하며 그 효과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군 입대 전과 초기에 군대 생활이 병사의 인생에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군 생활 간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인지적 차원의 지식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교육의 내용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사로서 마지못해 희생당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전우와 부대를 위해, 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군 조직의 특수한 환경을 질적 연구로 탐색함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경험을 살펴보았고, 평시 군 생활에서 국가 안보위기 상황으로 연결되는 전환기에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내부적이고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실제 상황 및 개전 초기의 병사들의 심리 변화를 다소나마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로서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평시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입대 전과 입대 초에 강화해야 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고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교육 효과를 높이는 환경조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실제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논의하였다. 군에서 이를 위해 병영생활 문화, 정신전력교육, 훈련 등 각종 분야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우선, 본 연구는 2015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당시 상황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회고적 진술을 통해 그들의 군 생활 경험과 전역 연기 결정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7년 전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Ericsson과 Simon(19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층면담을 통해 획득한 사후보고(retrospective report)형 기법들은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기억의 회상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군대의 병영문화가 달라진 점을 비교할 수 있고, 발전된 부분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당시는 병영문화혁신운동 초창기였기에 갈등과 혼란,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으나, 군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상호 간의 소통과 병영문화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군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기상황에서 병장의 자발적인 전역 연기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군 생활 경험과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를 파악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평가적 관점으로 과거 군 생활 경험이 연구 참여자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전역 후에도 각자가 속한 업계와 조직에서 잘 적응하여 주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을 받으며 유능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군 생활 경험과 안보위기 상황을 경험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군대와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 경험이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나 생애목표 발달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언론보도와 면담을 통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예비역 병장들과 간부들의 시선을 교차 검증하여 자료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직접 작성한 출정서, 군 내부에서 제작한 영상, SNS 카페 등에 장병 부모님이

올린 편지, 접경지격 주민대피기록 등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 내용과 면담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는데, 언론보도에서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역을 연기했다고 밝힌 인원이 있었으며,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기에 위기 상황에서 전역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면담 실시 간에 5명의 전역 연기 병장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전역 연기를 신청했던 다른 예비역 병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병사들의 자발적 전역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군 생활 경험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기에 여러 개념들 간의 상관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습 상황에서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과 결과에 착안하여 군대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역 병사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간의 관계와 각각의 크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병사들의 동기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동기 유형에 군 복무 적응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프로파일링 연구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록, 고재원, & 김용주. (2012). 군내 스트레스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45-344.

공중기(1994). **사병들의 군생활 적응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서울

구승신(2005).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방정책연구 21(2), 199-216

국방부(1983). 정신전력지도지침서. **국군홍보관리소**, 서울

국방부(1998). 정신전력지도지침서. **국방정신교육원**, 서울

국방부 군종실(2001).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국방정신전력원(2019). 2019 한국군 사회조사; 장병 행동 및 가치관 연구. **국방정신전력원**, 서울

권소영, 김완일(2016). 군 병사의 집단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3.4, 149-176.

권세기(2011). **G세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高麗大學校經營情報大學院, 서울.

권인혁(2004). **신세대 장병의 의식성향과 군조직 스트레스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남대학교 사회문과과학대학원, 대전

권태은(2003). **陸軍事故의 原因과 豫防對策에 關한 硏究**(석사학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권해수. (2012). **전・ 의경의 군복무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71-86

김강녕. (2015).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9**(1), 1-21.

김규남. (2015).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 및 대응방향-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진 비대칭 전력 위협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5**(6), 59-67.

김규남, & 이현희. (2015). 북한의 협상전술과 대응방향-남북 고위급접촉 및 공동합의

문 타결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5**(5), 61-70.

김금미. (2010). 대학생의 행복과 자아수용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63-883.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김상윤. (2015. 8. 26). 조국수호 완전무장, 든든하다 대한민국. **국방일보**. Retrieved from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50827/60/BBSMSTR_000000010026/view.do

김세원, & 신창식. (2015). 군 병사의 군 생활스트레스와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16-227.

김성완(1998). 군 정신전력 측정 평가 방안연구(Ⅱ), 국군정신전력학교.

김성완(1988). 정신력이 통하는 리더십, 가을 문화사, 서울.

김승욱. (2011). 회원기고: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의무복무자 동기유발 방안. **군사논단**, 68, 195-205.

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김아영, 김성일, 봉미미, 조윤정(2022). **학습동기 - 이론 및 연구와 적용**. 학지사, 서울

김아영, & 오순애. (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김엘리. (2012). 초남성 공간에서 여성의 군인되기 경험. **한국여성학,28**(3), 145-180.

김영애, & 문승태. (2014). 병사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아동기 트라우마, 성격이 복무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5), 2107-2126.

김영종 (2013). 우수 인력획득을 위한 육군 부사관 제도 연구-인력획득과 연 계한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활성화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3**(2), 111-120.

김영천, 정상원, 조재성(2019).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아카데미프레스, 서울

김옥란, 김완일(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김옥희, 차주환(2015). 전역자의 군복무경험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309-324.

김용언(2015). 거듭된 北 만행에 분노한 20대 젊은이들. **경북도민일보** Retrievecd from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667

김은주. (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김정은. (2013). 병사의 군생활 적응 위한 스트레스 대처모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6**(2), 5-38.

김재홍(2010). 학술논문 : 군(軍) 조직(組織)에서 조직문화(組織文化)가 조직(組織)의 임무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實證的) 분석. **군사논단 63**. 101-126.

김진수, & 서수균. (2011).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30(3), 793-809.

김철우. (2015). 칼럼 2: 북한의 미디어 심리전 실태와 대응방향. **군사논단,** 83, 9-15.

김택환. (1995). **흔들리는 군대, 병역기피자가 늘고 있다**. 월간말 1995년도 3월호 (통권 105호), 124-129.

김현.(2016) 국회 국방위, '자발적 전역 연기 근거법' 심사. **뉴스원**.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2581447

김현진. (2011).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조절동기, 학업정서 및 인지적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 간의 경로 탐색 연구. **교육심리연구, 25**(3), 693-716.

김효영(2008). **군복무 스트레스에 따른 군생활 적응**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구희곤, & 임수원. (2011). 인문, 사회과학편: 군 병사의 스포츠참여와 집단응집성, 군생활적응성, 조직효과성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50**(5), 295-307.

노준, 김영삼, & 문성호. (2016). 육군 일반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9**(1), 85-117.

도승이. (2005). 교실토론상황에서 학생의 감정, 인지, 행동의 상호작용: 근거이론 분석법을 통한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1), 17-39.

문성묵. (2015). 통일·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전략연구, 22**(2), 5-35.

문성묵. (2016). 남북 간 군사협상 사례연구. **협상연구, 19**(2), 59-76.

문연철, & 김용훈. (2013). 근거이론을 적용한 예비역단체의 국방정책 참여 특성.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1.

문인수. (2015). 든든한 20대 '신안보세대' 등장, **KTV.** Retrieved from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2130038D&content_id=516824

문제원(2019.06.05). "군단장 보직해임해달라"…청와대 청원하는 장병들.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0511292703160

민진 (2008).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51**(3), 61-94.

민진 (2010). 군대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53**(3), 97-123

민진(2011).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8**(3), 91-121.

박노순(1983). 전장심리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연구**, 창간호, 국군정신전력학교.

박균열(2018). 한국군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제언. **정신전력연구,** (55), 3-35.

박영신, 김의철, &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105-135.

박일, & 고영건. (2012).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105-124.

박태근(2015). [남북 협상 타결] 오늘(25일)정오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준전시상태 해제.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825/73231040/1

박현규(2021). **부대 환경과 군 생활 효용가치 인식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백순근, 엄문영, 정상근, 신안나, 장지현, 김학중, ... & 양혜원. (2020). 정신전력 개념 발전 및 측정도구 개발. **정신전력연구,** (60), 3-48.

서경석(1966). 전장감각, 사단법인 샘터사, 서울.

서미경, 박근우, & 이규화. (2013). 군복무를 통한 병사의 성장과 탄력성,대인관계의 변화: 계급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1**(4), 5-34.

서혜석(2006).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연구.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7-332.

서호준. (2020). '정신전력'분야 연구경향 분석을 통한 정신전력 교육 활성화 방안. **정**

신전력연구, (60), 51-84.

설정훈. (2018). 군 복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57-79.

손지연 (2018). 세대별 여가시간과 일-여가생활 간 균형.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25-140.

손지원(2006). **군 입대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송경재, 한민, 배준성, & 한성열. (2010). 입대 동기가 육군 병사와 해병대원의 군 생활과 미래 인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6**(4), 469-485.

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탈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 복지학**, 7:1, 63-95

수도방위사령부(1994), 전사로 본 장병 전의 고양. **수도방위사령부**, 서울

신대원. (2015). 軍, 작전지휘관 회의 "북한 도발시 강력 응징하겠다" **헤럴드 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150815000076

신상구. (2021). 채명신 장군의 군인정신 사례 연구-6· 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64), 89-135.

신응섭. (1999).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서울

신태수. (1981). **軍隊組織構成員의 自我正體感과 軍隊生活에의適應과의 關係硏究.** (석사학위) .延世大學校

심미혜. (2011).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성차별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17**(1), 1-17.

엄덕희. (2009).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오현철. (2012).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윤민재. (2008). 군인 인권과 사고 (자살) 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8**(1), 79-109.

이범구. (2017).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협과 대북 선제타격 전략. **군사발전연구, 11**(1), 91-108.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Ⅰ: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이상우(2010).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성취목표지향성, 기본심리욕구,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학논총, 31**(1), 45-68.

이영자(2005).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인식**,(통권 96호), 81-108

이새롬(2012). **군 부적응 병사의 군 적응을 위한 관계성 향상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성열(2011).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이숙정(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이영민(1991). 신 지휘통솔. **도서출판 정인**, 서울

이영찬(2022). 군인정신의 역사적 고찰과 외국군의 정신과 비교 연구. **정신전력연구**, (69), 81-112.

이재승(2012).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독일 군인법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49**(단일호), 121-163.

이종호(1996). **군 조직에서 신입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이태동.(2015). 北 인민군 "대북심리전 방송 중지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5/2015081500455.html

이혜영 (2011).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혜주, & 박정윤. (2020).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Double ABC-X 모델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5**(1), 21-42.

임은진. (2015). "전투준비 끝났다"…북한, 주민들에 전쟁 분위기 고취(종합).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4073551014?input=1195m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2016).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임홍택(2018). (간담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 **서울: 웨일북.**
장경숙 (2007). **신세대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장성구. (2015). 北 지뢰도발 유감표명…南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종합3보).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5013800001?input=1195m
장성규, 이상규, & 최종혁. (2014). 군 부적응 병사들의 기질 성격 특성, 회복탄력성 및 예측요인에 관한 대조군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53**(3), 178-185.
전동우. (2010). **군 입대동기와 입대유형 (징집, 모집) 이 심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전수정. (2021). **전역을 선택한 중기 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경험과 변화**.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찬부(2016). **군 장병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정광섭 (2008). **위관장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정승교. (2009). 사관생도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집단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문화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65**(2), 149-173.
정상근, 임훈민, 이보민 (2017) 국군 장병의 부대 응집력, 정신건강, 임무 효능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17-6(한국군 사회조사 테마보고서)**. 국방정신전력원
정래석, 정윤호.(2015). [北 포격도발] “긴급 방송에 옷보따리 챙겨... 6.25 이후 대피령은 처음”. **강원일보**. Retrieved from
http://www.kwnews.co.kr/page/view/2015082100000000060
정은경, 하양숙(2014).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군 생활 만족도가 제대 군인의 군 경험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군진간호연구. 32**(1), 53-65.

정원철, & 박영주. (2012). 관심병사의 군 생활경험과 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19**(11), 91-115.

정원철, & 지향숙. (2014). 군 생활스트레스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11-320.

정태연. (2018) 심리학 관점에서 본 무형전력. **국방인문총서18**. 국방정신전력원

정혜민(2021). **학업무기력 초등학생의 교사의 사회적지지 경험과 요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조아미. (2015) "조국은 우리가 지킨다" 우린 新안보세대. **국방일보**. Retrieved from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50827/73/BBSMSTR_000000010026/view.do

조우찬. (2019).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전력 연구 :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59), 77-116.

조추용(2015). 군장병들의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개인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8(2), 97-125.

조한범. (2015). **8· 25 남북 합의 평가와 향후 전망.**

조현묵(2013). **카투사의 군 생활 적응 영향요인 연구**(석사학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주경례, & 안신호. (2005). 무엇이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가?: 삶의 의미 연구에 대한 개관. **심리과학,4**, 1-24

주지향, 정구철(2019). 대학생들의 병영생활적응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투지 및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240-251.

진석범(2001).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적응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이지연, 김동삼. (2022). MZ세대 장병의 정신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정신전력연구**, (71), 233-276.

이재승. (2012).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독일 군인법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49**(단일호), 121-163.

이재철, 김정환, 안갑성(2015). 천안함 때와 달리...청년 10명 중 6명 "北 응징 표명 잘했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6914660

임대환, & 김동주. (2014).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구성원 간 신뢰와 집단응집성휘 매개효과. **경영교육연구, 29**(1), 23-51.

임미향, 박영신, & 김의철. (2007).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성격,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255-283.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 손영우. (2016).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생활관구조와 분대장 과업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원성윤. (2015). 달라진 20대 '신안보세대'의 출현?. **허프포스트코리아**. Retrieved from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4

유광석(2015). 북한, "남한 사재기 만연…병영 탈주" 허위 선전. **KB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34780&ref=A

육군. (2017). 전장환경 극복을 위한 장병 전의고양 가이드북. **육군본부**, 충남 계룡

윤민재. (2008). 군인 인권과 사고 (자살) 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8**(1), 79-109.

윤철수, & 유기웅. (2013). 교육복지 네트워크의 어려움과 개선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와 프로젝트 조정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1-27.

이민희, 정태연 (2008).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동기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77-99.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손영우 (2016).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조용환. (2011).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조용환. (2019). **서울대 교육연구소 2019년 동계 연구 방법론 워크숍 자료집**. 미간행

전가일. (2020). 한 공동육아협동조합원들의 공동육아 경험을 통해 본 사회적 육아의 의미. **미래교육학연구, 33**(2), 127-155.

전주람, & 신윤정. (2019). 북한이주민들의 남한사회에서 직장 유지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통일과 평화, 11**(2), 351-397.

정상근, 임훈민, 이보민 (2017) 국군 장병의 부대 응집력, 정신건강, 임무 효능감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17-6(한국군 사회조사 테마보고서)**. 정신전력원

차주환, 이정하, & 임성호. (2010). 병사의 부모애착, 낙관주의적 성향, 사회적 기술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31**(2), 283-298.

천성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韓國敎育論壇,7**(1), 1-19.

최명선, 구남웅(2008).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 관의 공감능력, 친밀도와 부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27-124

최병연. (2002). 자기 결정성 학습동기 이론의 교육적 적용. **교육문제연구,** (16), 0-0.

최선(2015). [병영통신] 北포격 전역연기 88명…10명 중 8명이 최전방. **이데일리**. Retrieved fro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09472568&mediaCodeNo=257&OutLnkChk=Y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질적탐구, 2**, 127-155.

최영찬(2014). **신세대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희대학교, 서울

최춘례. (2000). **집단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방관적 태도와 학급 응집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친 영향**.

현혜란. (2016) 軍 자발적 전역연기 근거마련법, 국방위 통과.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60223128200001?input=1195m

홍서현, & 정태연. (2013). 군대 경험이 갖는 삶의 의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147-147.

Ahronson, A., & Cameron, J. E. (2007).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group cohesion in a military sample. *Military Psychology, 19*(1), 9 - 25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einhart & Winston.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The Guilford Press.

Ben-Dor, G., Pedahzur, A., Canetti-Nisim, D., Zaidise, E., Perliger, A., & Bermanis, S. (2008). I versus we: Collective and individual factors of reserve service

motivation during war and peace. *Armed Forces & Society, 34*(4), 565.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 3 (Vol. 1).

Bryan, C. J., Elder, W. B., McNaughton-Cassill, M., Osman, A., Hernandez, A. M., & Allison, S. (2013). Meaning in life, emotional distress, suicidal ideation, and life functioning in an active duty military sampl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5), 444-452.

Carron, A. V. (1982). Cohesiveness in sport groups: Interpretations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2).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sage.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17).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au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s*, Sage publications.

Creswell, J. W., Poth C, N. (2018) *Qualitatic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London: Sage, Inc.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Dabke, D. (2016). Impact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ransformational behavior on perceived leadership effectiveness: A multiple source view. *Business Perspectives and Research, 4*(1), 27-40.

Dale H. Schunk, Paul R. Pintrich, & Judith L. Meece (2013) *학습동기 - 이론, 연구 그리고 교육(3rd ed.). 서울대학교 학습창의센터 신종호* (번역). 서울: 학지사.

Deci, E. L., & Ryan, R. M. (1980). Self-determination theory: When mind mediates behavior.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33-43.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Deci, E. L., Vallerand, R. J., Pelletier, L. G., & Ryan, R. M. (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25-346.

Dion, K. L. (2000). Group cohesion: From" field of forces" to multidimensional construct.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1), 7.

Dowson, M., & McInerney, D.M. (2003). What do student say about their motivational goals?: Towards a more complex and dynamic perspective on stud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8*(1), 91-113.

Dyaram, L., & Kamalanabhan, T. J. (2005). Unearthed: the other side of group cohesiveness. *Journal of Social Sciences, 10*(3), 185-190.

Emmons, R. A., Colby, P. M., & Kaiser, H. A. (1998). *When losses lead to gains: Personal goals and the recovery of meaning.*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

Etzioni, A. (1961).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Free Press of Glencoe, New York.

Graneheim, U. H., & Lundman, B.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2), 105-112.

Griffith, J. (2002). Multilevel analysis of cohesion's relation to stress, well-being, identification, disintegration, and perceived combat readiness. *Military Psychology, 14*(3), 217-239.

Grolnick, W., & Ryan, R.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2), 104.

Halevy N, Y. Chou E, D. Galinsky A(2011). A functional model of hierarchy: Why, how, and when vertical differentiation enhances group performance. *Organizational Psychology*

Hayamizu, T. (1997).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Examination of reasons for academic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lization.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39*(2), 98-108.

Henriksen, R. (2007). Warriors in combat - what makes people actively fight in

combat?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0*(2), 187-223.

Hinshaw, R. P. (194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the problem of norms. *Psychological Review, 49*(3), 284 - 292.

Hollingshead, A. (1946).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1*(5), 439-447.

Hsies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Horowitz, D., & Kimmerling, B. (1974). Some social implications of military service and the reserves system in Israel.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15*(2), 262-276.

Manning, F. J., & Ingraham, L. H. (1981). Personnel attrition in the US Army in Europe. *Armed Forces & Society, 7*(2), 256-270.

McPherson, J. M. (1997). *For cause and comrades: Why men fought in the Civil War*. Oxford University Press.

Irving, M. J., Tong, A., Jan, S., Cass, A., Rose, J., Chadban, S., ... & Howard, K. (2012).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to be an organ donor: a systematic review of the qualitative literature. *Nephrology dialysis transplantation, 27*(6), 2526-2533.

Jang, H., Kim, E. J., & Reeve, J. (2016). Why students become more engaged or more disengaged during the semester: A self-determination theory dual-process model. *Learning and instruction, 43*, 27-38.

Janowitz, M. (1971). *The professional soldier,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New York, NY: Free Press.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

Kirke, C. (2010). Military cohesion, culture and social psychology. *Defence & Security Analysis, 26*(2), 143-159.

Koro-Ljungberg, M., MacLure, M., Ulmer, J., Denzin, D. N., Lincoln, Y. S., & ed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inings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232-241.

Light Shields, D. L., Gardner, D. E., Light Bredemeier, B. J., & Bostro, A.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behaviors and group cohesion in team spor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1*(2), 196-210.

Gal, R., & Manning, F. J. (1987). Morale and its Components: A Cross National Comparison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4), 369-391.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arying, P. (2000). *Introduction to Qualitative Social Research*, Cev. A. Gumus and MS Durgun.

McGregor, I.,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94-512.

McPherson, J. M. (1997). *For cause and comrades: Why men fought in the Civil War*. Oxford University Press.

Newsome, B. (2003). The myth of intrinsic combat motivation.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6*(4), 24-46.

Oliver, L. W., Harman, J., Hoover, E., Hayes, S. M., & Pandhi, N. A. (1999). A quantitative integration of the military cohesion literature. *Military Psychology, 11*(1), 57-83.

Pawiński, M., & Chami, G. (2019). Why they fight? Reconsidering the role of motivation in combat environments. *Defence Studies, 19*(3), 297-317.

Peplau, L., & Perlman, D. (1979). BLUEPRINT FOR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LONELINESS. *In Love and Attraction* (pp. 101-110). Elsevier.

Ryan, R. 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Ryan, R. M., & Deci, E. L. (2000). When rewards compete with nature: The undermining of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I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pp. 13-54). Academic Press.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2*, 3-33.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340-356.

Saldana, J. (2009).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Sarason, I., Sarason, B., & Pierce, G. (1990). SOCIAL SUPPORT - THE SEARCH FOR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1), 133-147.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 449-464.

Siebold, G. L. (2007). The essence of military group cohesion. *Armed forces & society, 33*(2), 286-295.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Jr.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Princeton Univ. Press.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omer, A., Eliason, G. T., & Wong, P. T. (Eds.). (2007).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Psychology Press.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Vash, C. L. (1994). *Personality and adversity: Psychospiritual aspects of rehabilita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Woodruff, T., Kelty, R., & Segal, D. R. (2006). Propensity to serve and motivation to enlist among American combat soldiers. *Armed Forces & Society, 32*(3), 353-366.

Yin, R. K. (2003). Designing case studi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5*(14), 359-386.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Vol. 5). sage.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OK Army Soldiers' Drive for Postponement of Discharge in a state of national security crisis

Jihye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decision of the sergeants to voluntarily postpone discharge and remain in the unit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The main two 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were to first check how the sergeant's military experience, who was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second, to see what factors influenced the voluntary delay in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arious references were collected and interviewed based on media reports at the time of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Mokham mine provocation on August 4, 2015 and the shelling war on August 20, 2015.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rgeants who decided to postpone their discharge had high adaptability to military service and were recognized and supported by executives, colleagues, and successors. They said that their military life was fun and that time passed quickly, and despite various

difficulties, military life remained a good memory.

Second, the sergeants who decided to postpone their discharge from the military gave meaning to military life from the time they wer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nd had expectations and confidence in the value of their military life experience. Before joining the military, a positive image of the military was formed from the experiences of his father and his surrounding soldiers, and he continued to maintain an active attitude through praise, encouragement, recognition, and rewards for sincerity and activeness in the early days of enlistment.

Third, sergeants were guaranteed an autonomous choice without pressure,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unit members formed through military life and the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of mastery of duties serv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sergeant's decision to postpone discharge.

Fourth, in the case of personnel who had an identity and a sense of national community as soldiers protecting the state,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modeling learning and mental power education for commanders and executives when deciding to postpone the discharge.

In this study, various types of data such as media reports, video data, border resident evacuation records, and official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researchers tried to interact with interviewees and form in-depth interview contents.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data analysis was enhanced by securing testimonies from active and reserve officers who worked with them as well as the reserve sergeant, who was involved in the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discharge.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ithin the unit to meet basic psychological needs. Especially,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unit members w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in the voluntary decision to postpone discharge in a crisis, reminding us that efforts to create a barracks atmosphere and environment to

form comradeship ar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Second, the study participants enlisted with a friendly view of the military, and a virtuous cycle occurred that allowed them to continue their activeness by giving feedback from the unit about their active attitude.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hat can have a friendly perspective and utility value for the military should be conducted for those who are scheduled to join the military, and that soldiers should continuously satisfy their achievement experience and desire for recognition. Third, mental power education organized by the commander and the influence of executives were confirmed, especiall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at soldiers can actually see, experience and feel, rather than simply injecting the concept of inner value at the knowledge level.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aptured and appealed a special case of the decision to postpone the discharge of the sergeant under the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qualitatively explored the behind the phenomenon and human psycholog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and it sought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psychology and behavior by focusing on conscripted soldiers, military environment, and individual interactions through special cases of voluntary military acting sergeant. Accordingly,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nd mental power education for soldiers in case of emergency.